

국가적 차원의 최단기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요구하며

www.ekara.org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동물권행동
카라

CONTENTS

I. 들어가며	04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II. 조사대상 및 항목	08	① 개체현황	
1. 일반 현황		② 질병현황	
2. 경매장 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③ 사회화현황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4) 위생과 방역	
4. 위생과 방역		① 경매장	
5. 개식용 산업 피해대 동물 구조 비용		② 도살장	
III. 조사범위 및 방법, 한계	14	③ 지육 유통	
IV. 조사결과	18	5) 개식용 산업 피해대 동물 구조 비용	
1. 개고기 유통 과정		V. 결론	72
2. 조사 결과		1.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1) 일반 현황		2. 개식용의 사회적 비용	
① 경매장(시설/ 운영 및 영업형태/ 유통거래량 및 거래수익/ 거래동물 분석)		VI. 조속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을 위해	78
② 도살장(시설/ 운영 및 영업형태/ 도살방법 및 도구)		1. 정부의 무위 속에 방치돼 온 사람(국민)과 동물 (개)의 안전과 복지	
2) 경매장·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2. 현행법규의 한계 및 조기종식의 당위성	
① 경매장(계류/핸들링/운송)		3. 입법기관의 역할	
② 도살장(계류/핸들링/도살과정 및 방법)		4. 행정기관의 역할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들어가며





I. 들어가며

2005년 개식용 종식 캠페인과 실태조사를 위해 결성된 ‘팀 옐로우독’의 개농장 필드 조사를 시작으로 동물권행동 카라의 개식용 종식 활동은 언제나 고통받는 동물이 있는 현장으로 향했다.

부단히 개식용의 잔인성을 알리는 한편 2014년부터는 날로 대형화하는 소위 ‘식용 개농장’의 실태 조사와 법적 대응에 집중하였다. 2016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유일의 한국 대규모 ‘식용개’ 사육 실태와 동물 학대를 세계에 공개했고, 2017년에는 개농장에 유입되는 막대한 자원이자 심각한 학대 행위인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와 환경부의 행정무위를, 2018년에는 식품위생법을 집행하지 않는 식약처가 개식용문제의 숨은 주범임을 밝혀 알렸다.

2019년부터는 구체적인 종식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내 개농장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20대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국 최초로 개식용 종식을 대선 공약으로 내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많은 동물단체의 희생적 노력의 결과, 현재 국민의 높은 기대와 공감 속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발족되었다. 하지만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저항과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종식이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위법성과 동물 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서 망설일 뿐 확실한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본 보고서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알려져 온 개도살장과 개경매장 실태와 더불어 구조된 동물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산업의 본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개식용 종식 국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떠한지 작은 단서나마 제공하고자 한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고통과 무질서의 산물인 개식용을 빠르게 종식하고 우리 사회가 상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비참한 도살장과 경매장에서, 치료와 돌봄과 입양 현장에서 수많은 시간동안 한마음으로 고생한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존경을 바친다.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II

조사대상 및 항목

1. 일반 현황
2. 경매장 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4. 위생과 방역
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II. 조사대상 및 항목

1.

일반현황

- 용어: 개식용 경매장은 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경매장과 다르며 오로지 '식용' 목적으로 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¹⁾ 소위 식용개의 지육(개고기)²⁾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축산물에 속해 있지 않다. 따라서 식용개 도살장은 본법에서 규율되는 '도축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살장'으로 표기한다.
- 조사대상: 파주시에 소재한 경매장과 경기도 4개소³⁾의 불법 도살장이며, 조사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경매장 및 도살장 일반현황 조사항목

경매장	도살장
시설/운영 및 영업 형태/유통 거래량 및 거래수익/ 거래 동물 분석	시설/ 운영 및 영업형태/ 도살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경매장 거래전표 기반 동물 판매/구매 분석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자 및 구매자 총수와 판매/매입액 - 견종별 총 거래 마리수와 거래 총액 - 총 경매 횟수 및 일(日) 경매 거래액 - 상위 10위 판매자/구매자 일평균 판매/매입액 등 규모 추산 - 상위 10위 최빈도 판매자/구매자 경매 참여 횟수 및 견종별 구매 마릿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현황(도살자 현황), 운영 형태, 시설 현황 및 규모, 도살 방법

2.

경매장 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 식용개 경매장과 도살장 내 동물복지는 동물이 유입된 이후 사육(계류) 환경 및 형태, 동물 핸들링, 도살 환경 및 방법⁴⁾을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복지 침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보통 식용개 경매장은 계류장, 사무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상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설 형태와 개를 실은 트럭들이 특정 장소로 거점을 옮겨 다니며 거래하는 비상설 형태로 나뉜다. 상설 경매장은 경기도 파주시, 이천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021년 파주시 경매장은 지자체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2021년 12월 영구 폐쇄되었다.

2) 동물을 도살하여 머리, 내장, 발 등을 제거하고 몸통만 남은 고기를 일컫는다.

3) 동물권행동 카라가 폐쇄한 도살장들로 경기도 고양시의 2개소, 경기도 남양주시 1개소, 경기도 여주시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4)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도살(제10조 ①항 4호)은 도살방법의 잔인성과 무관하게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도살장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도살행위에 대한 복지 평가를 담는다.

[표2] 조사항목 및 준용한 기준 법령

경매장	도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 환경 및 형태: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제69조 영업의 허가(동물판매업) - 핸들링: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11조(동물의 운송) - 운송: 제 11조(동물의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계류 환경 및 형태: 동물보호법 제 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제69조 영업의 허가(동물생산업) - 핸들링: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제13조(동물의 도살 방법) - 도살 환경 및 방법: 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 조사대상: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도살장 4개소에서 구조된 총 147마리의 동물 중 개는 140마리로 구조 후 태어난 자견 11마리를 제외한 129마리를 연령·성별·질병·기질(사회화 정도)에 따라 분류, 분석하였다.⁵⁾
- 조사항목: 연령 항목은 개체별 치아 상태를 중심으로 확인, 추정치를 기록하였다. 질병 항목은 홍역, 파보, 코로나, 지알디아, 심장사상충⁶⁾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면서 출산여부, 임신 등 정보를 파악·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체들의 사회화 수준을 정량화하여 분석하였다.

[표3] 구조동물 실태 조사항목

조사 대상	구조동물 실태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살장 4개소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현황: 추정 연령/ 체중/ 성별 - 질병현황: 홍역, 파보, 코로나, 지알디아, 심장사상충, 사망 - 임신출산: 출산 흔적/ 구조 당시 임신여부/ 구조 후 중절/ 구조 후 출산 개체 수 - 사회화현황: 1단계~4단계 친화도⁷⁾

5) 도살장 4개소에 계류된 동물들은 개(140) 외에 미니피그(1), 칠면조(2), 흑염소(2), 사향오리(2) 등 다양한 동물 종이 있었으며 이들 전원을 구조하였다.
 6) 5개 항목은 반려견에 대한 통상적인 예방 접종 항목이며 키트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7)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친화도를 나타낸다.

4.

위생과 방역

- 조사대상: 소비자의 보건위생과 방역 측면에서 경매장과 도살장 4개소의 동물 사육공간, 도살작업장, 도살 과정 및 후처리의 위생 상태, 유통 과정 등을 조사하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법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표4] 도살장 위생과 방역 측면 조사항목

위생과 방역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계류 공간 - 도살작업장 형태 및 위생수준 - 도살 과정 및 후처리 위생상태 - 유통 과정

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 조사대상: 4개소 도살장에서 구조된 성견 129마리의 질병 별 치료비용과 소요기간, 중성화 수술 비용, 입양을 위한 사회화 훈련 기간과 비용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산출 근거 항목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산출 근거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및 접종 비용 - 질병치료비용 - 중성화 수술 비용 - 사회화 훈련 비용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III

조사범위 및 방법, 한계

III. 조사범위 및 방법, 한계

-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실제 운영된 경기도 소재의 도살장 4개소⁸⁾와 파주 소재 경매장이며, 시간적 범위는 경매장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도살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조사된 정보를 취합하였다.
- 조사방법: 경매장의 경우 거래 규모 및 거래 방식, 거래된 동물에 주목하여 조사하였다. 2022년 1월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경매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전표, 원장 등 관련 문서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통계 산출하였다. 도살장의 경우 폐쇄 전 외부에서 확보한 운영실태 및 동물 핸들링 사진/영상자료, 폐쇄 시 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육안 조사, 구조된 동물에 대한 육안조사 및 검진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 한계: 경매장 내 동물 거래 방식 및 과정, 도살장 이동 후 도살·처리·유통 등 전체적인 과정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진/영상 자료를 기초로 하며, 순차적으로 과정을 정리, 명시함으로써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만, 입수 자료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분에 그쳐 여름 특수를 노리는 본 영업의 특성상 실제보다 영업 규모가 작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도살장은 파주 경매장을 무대로 영업하는 상인 혹은 도살자를 추적 조사한 것으로 이외 대규모 개농장내 부설 도살장과 대형 도살장은 본 보고서 내용 밖에 있다.

8) 도살장은 일반적으로 민간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야산이나 도심지 외곽 고물상(재활용센터 또는 환경자원센터) 등에 소재한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틈새를 최대한 막고 있어 인근 거주민의 제보 없이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도살장 내부 진입을 위해 현행법 위반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IV

조사결과

1. 개고기 유통 과정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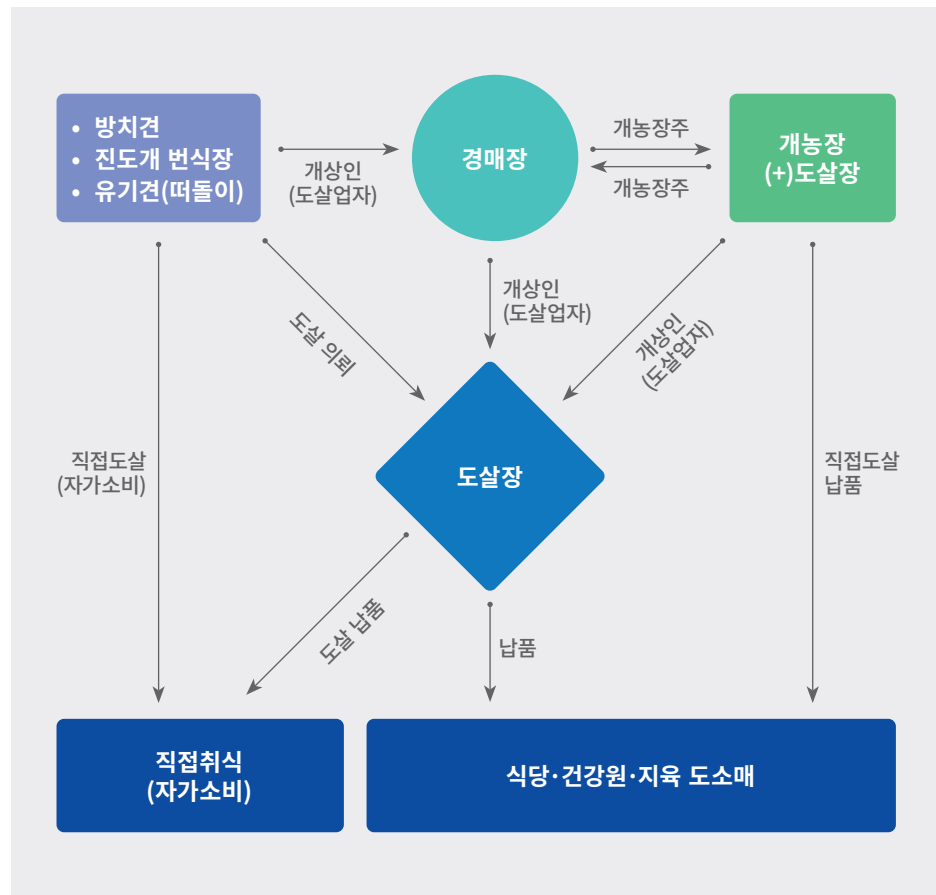
IV. 조사결과

1.

개고기 유통 과정

- 개의 사육, 도살, 지육 유통, 보신탄 및 개소주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개식용 산업 유통도식도



- 개농장: 개식용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축으로서 개들을 집단 사육하여 상인에게 판매한다. 개농장에서 사육과 도살, 지육의 납품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 경우 사철탕집(보신탄집) 또는 건강원(개소주집)과 연계되어 있거나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개상인과 경매장: 살아있는 개들은 경매장을 통하거나 상인에 의해 개농장으로부터 도살장으로 직접 운반된다. 개상인 중에는 본인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개상인은 일정 마릿수의 동물들을 계류장 혹은 도살장에 계류시키며 도살장에 상시 조달·판매하거나 직접 도살하여 지육을 공급하기도 한다.
- 도살장: 개상인 또는 도살업자는 경매장 혹은 개인이 도살 의뢰한 개들을 도살하며 개 지육을 식당이나 건강원에 납품한다. 건강원 중 일부가 직접 개들을 도살하기도 한다.
- 식당·건강원·지육 도소매점·직접취식: 도살 후 해체된 사체(지육)는 개를 실었던 차량에 그대로 실려 음식점 또는 건강원 등 영업장으로 이동된다. 요구된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도살장으로 복귀하여 추가 도살하거나 경매장에서 개를 구입하는 반복된 루트가 관찰된다.

2.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① 경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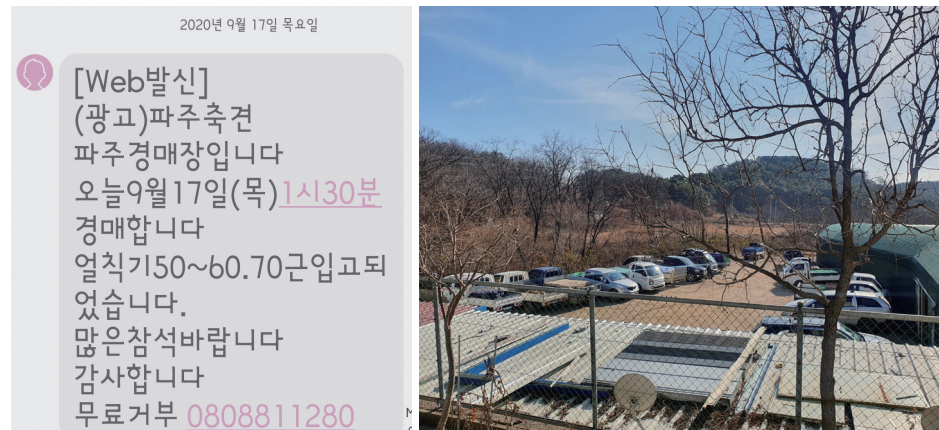
시설

- 개농장과 동일한 뜰장에 개들을 계류하며 경매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가족단위의 운영자들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었다. 경매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었다. 경매 낙찰된 개들은 뜰장에 갇힌 개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장에 올라가미로 구겨 넣어지거나 트럭에 끌려가는 모습을 전부 목격하고 있었다. 뜰장은 상시 50여 마리의 대형견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규모였다.
- 경매장은 해당 부지를 불법 점유 중이었고 파주시는 ①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 ②농지불법전용행위, ③불법개발행위, ④건축법 위반 등으로 해당 경매장을 고발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렸다.

운영 및 영업형태

- 운영형태: 경매장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며 고객은 전국 각지의 개상인 (도살자) 또는 개농장주이다. 경매 일정을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실제 경매장 내외부 경계가 높은 편이다.
- 경매빈도: 경매는 통상적으로 주 3회 진행되고, 초복, 중복, 말복 등 소위 복날 기간의 경우 24시간 상시 이루어진다. 해당 기간 특정 방문자의 패턴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2~3회씩 경매장을 방문, 도살할 개들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림2] 회원에 발송된 경매개시 문자/ 파주 경매장 주차장을 메운 트럭들



[그림3] 경매가 진행 중인 파주시 소재 경매장 내부



유통거래량 및 거래수익

- 유통거래량: 확보된 거래전표 자료에서 특정 기간을 기반으로 유통거래량을 파악하였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파주 경매장 한 곳에서만 총 구매건수는 739건, 판매건수는 746건이다.⁹⁾ 거래 마리수는 4,057마리가 구매되었고, 4,613마리가 판매되어 거래당 마리수는 구매 5.5마리, 판매 6마리이다. 동 기간 구매총액은 754,566,000원, 판매총액은 736,860,000원으로, 거래 건수당 구매액은 1,021,064원, 판매액은 987,748원이며 마리당 구매액은 185,991원, 판매액은 159,736원으로 거래되었다.

[표 6] 2021년 9월~11월 총 경매 횟수 및 경매 거래 규모

구분	월	거래 건수	거래 마리수	마리수/거래	거래총액(원)	거래당 금액(원)	마리당 금액(원)
구매	9월	244	1261	5.2	240,446,000	985,434	130,679
	10월	266	1518	5.7	280,710,000	1,055,301	184,921
	11월	229	1278	5.6	233,410,000	1,019,258	182,637
	합계/평균	739	4057	5.5	754,566,000	1,021,064	185,991
판매	9월	223	1464	6.6	236,405,000	1,060,112	161,479
	10월	280	1699	6.1	280,195,000	1,000,696	164,918
	11월	243	1450	6.0	220,260,000	906,420	151,903
	합계/평균	746	4613	6.2	736,860,000	987,748	159,736

[표 7] 2021년 9월~11월 총 경매 참여 회원수 통계

구분	월	회원수	참여 회원수	회원당 금액(원)	동 기간 판매/구매 동시진행 회원수
구매	9월		71	3,386,563	59
	10월		65	4,318,615	
	11월		62	3,764,677	
	합계/평균	91	198	3,810,939	
판매	9월		90	2,626,722	
	10월		90	3,113,278	
	11월		86	2,561,163	
	합계/평균	159	266	2,770,150	

9) 구매/판매 거래건수가 각각 739건, 746건으로 7건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적 비회원 거래 또는 거래장부의 누락으로 추정되며 실제 11월 구매장부를 보면 순번은 208까지이지만 건수는 229건이다.

- **경매참여자:** 해당 기간에 참여한 경매장 회원 규모는 구매자 198명, 판매자 266명이며, 이들 중 판매와 구매 둘 다 진행한 회원은 59명이다. 이 중에서 28명의 회원이 판매보다 더 많은 구매량을 보였으며, 기간 내 가장 높은 구매 총액이 무려 8,100만원으로 412 마리나 구매하였다(표 8 참조).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들 중 구매량이 많은 28명 회원들의 절반 이상(17명¹⁰⁾ 개상인(유통/도살업자/유통과 도살 및 지육 납품 병행)로 추정되며 별도 소유한 농장으로 이동하거나 바로 도살장으로 이동, 구매한 개들을 넘기고 주문에 따라 도살 후 지육을 납품한다.
- **수수료:** 구매 및 판매 전표를 통해 경매장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건당 6%임이 확인된다. 개를 판매 시 구매자에게 6%를 부과하고 구매시 판매자에게 6%를 공제하여 금액을 정산한다. 경매장은 총 거래액의 12% 수익을 얻는 셈이다.

[그림 4] 파주시 경매장에서 확보한 구매/판매 경매전표

경매 전표(구매자)

매주: 화목도 1430분 2021-09-17 14:48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순서	방	견종	성별	상태	비고	구매금액	구매자	수
44	9	박구	교리	-	-	70,000		1
45	10	황구	-	-	-	250,000		1
50	14	황구	교리	-	-	190,000		1
60	19	관동이	-	-	-	140,000		1
80	26	황구	-	-	-	130,000		1
83	26	황구	등	-	-	130,000		1
84	26	관동이	-	-	-	130,000		1
85	26	관동이	교리	-	-	130,000		1
86	27	관동이	-	-	-	130,000		1
87	27	관동이	황	-	-	130,000		1
88	27	관동이	교리	-	-	130,000		1
89	27	황구	-	-	-	130,000		1
90	28	황구	-	-	-	130,000		1
91	28	관동이	-	-	-	130,000		1
92	29	관동이	황	-	-	130,000		1
93	29	황구	-	-	-	130,000		1
94	29	황구	등	-	-	130,000		1
95	29	관동이	-	-	-	150,000		1
102	81	누렁이	황	-	-	250,000		1
109	82	누렁이	황	-	-	300,000		1
109	83	누렁이	-	-	-	315,000		1
132	84	누렁이	황	-	-	300,000		1
139	85	누렁이	교리	-	-	290,000		1
148	89	누렁이	황	-	-	300,000		1
147	89	누렁이	교리	-	-	300,000		1
149	89	누렁이	교리	-	-	300,000		1
152	91	누렁이	-	-	-	250,000		1
154	91	누렁이	교리	-	-	200,000		1
155	93	누렁이	-	-	-	250,000		1
합 계						₩ 5,575,000	구매수량 29	

수수료 공제 총합: ₩ 5,909,500

수납
2021. 09. 17
평화경매장

(평화)농협 352-1826-
평화경매장:

이같은 문자는 금액의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평화)농협 352-1826-
평화경매장:

수납
계좌송금
이금역
이금역

경매 전표(판매자)

매주: 화목도 1430분 2021-09-17 14:17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순서	방	견종	성별	상태	비고	판매금액	판매자	수
45	73	누렁이	-	-	-	240,000		1
46	73	누렁이	등	-	-	330,000		1
78	73	누렁이	교리	-	-	250,000		1
47	74	누렁이	-	-	-	300,000		1
48	74	누렁이	등	-	유찰	-		-
79	74	누렁이	교리	-	-	240,000		1
49	75	누렁이	-	-	-	355,000		1
50	75	누렁이	황	-	-	330,000		1
51	76	누렁이	-	-	-	260,000		1
52	76	누렁이	등	-	-	345,000		1
53	77	누렁이	-	-	-	320,000		1
54	77	누렁이	황	-	-	180,000		1
합 계						₩ 3,140,000	판매수량 11	

수수료 공제 총합: ₩ 2,951,600

수납
2021. 09. 17
평화경매장

(평화)농협 352-1826-
평화경매장:

이같은 문자는 금액의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평화)농협 352-1826-
평화경매장:

수납
계좌송금
이금역
이금역

- **수익:** 9월~11월 3개월 간 구매와 판매 거래를 통해 경매장이 얻은 수수료는 각각 45,273,960원과 44,211,600원으로 총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하며 월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거래유형은 대체로 현금 또는 계좌 송금으로 이루어진다. 본 거래명세는 개 지육과 보신탕 유통이 최고조에 달하는 5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가 아니므로 보신탕 수요가 높은 기간의 수익이 아님을 밝힌다.

10) 표 8에서 구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판매량보다 구매량이 많은 경우 집계한 수치임

[표 8] 2021년 9월~11월 간 구매 및 판매를 동시에 한 업자별 판매와 구매액

회원명	구매/판매	성격 추정 ¹¹⁾	구매 횟수	구매 마리수	구매금액	평균구매액	판매 횟수	판매 마리수	판매금액	평균판매액	거래규모
신0	둘다(구매)	개상인	28	412	₩81,400,000	₩2,907,143	1	1	₩140,000	₩140,000	100마리이상
안00	둘다(구매)	개농장	32	267	₩67,345,000	₩2,104,531	12	26	₩3,595,000	₩299,583	100마리이상
정00	둘다(구매)	개상인	22	185	₩50,530,000	₩2,296,818	1	1	₩10,000	₩10,000	100마리이상
희0	둘다(구매)	개상인	31	156	₩40,405,000	₩1,303,387	1	6	₩365,000	₩365,000	100마리이상
수0	둘다(구매)	개농장	15	121	₩33,050,000	₩2,203,333	6	14	₩2,410,000	₩401,667	100마리이상
경0	둘다(구매)	개농장	31	260	₩24,835,000	₩801,129	18	46	₩8,040,000	₩446,667	100마리이상
일0	둘다(구매)	개상인	23	121	₩24,395,000	₩1,060,652	1	3	₩675,000	₩675,000	100마리이상
사0	둘다(구매)	개상인	31	109	₩24,230,000	₩781,613	5	9	₩650,000	₩130,000	100마리이상
김000	둘다(구매)	개농장	17	132	₩17,460,000	₩1,027,059	1	7	₩460,000	₩460,000	100마리이상
초0	둘다(구매)	개상인	22	95	₩17,450,000	₩793,182	3	4	₩1,150,000	₩383,333	50마리이상
여0	둘다(구매)	개상인	14	79	₩15,635,000	₩1,116,786	1	1	₩80,000	₩80,000	50마리이상
감0	둘다(구매)	개농장	22	95	₩14,195,000	₩645,227	5	23	₩1,825,000	₩365,000	100마리이상
노00	둘다(구매)	개상인	14	137	₩12,485,000	₩891,786	1	2	₩160,000	₩160,000	100마리이상
대0	둘다(구매)	개농장	9	42	₩11,570,000	₩1,285,556	7	28	₩2,720,000	₩388,571	50마리 이상
영0	둘다(구매)	개농장	5	23	₩11,513,000	₩2,302,600	1	14	₩1,830,000	₩1,830,000	
안00	둘다(구매)	개상인	4	32	₩9,515,000	₩2,378,750	2	5	₩285,000	₩142,500	
상0	둘다(구매)	개상인	11	81	₩8,330,000	₩757,273	2	3	₩275,000	₩137,500	50마리이상
성0	둘다(구매)	개상인	3	20	₩7,000,000	₩2,333,333	1	2	₩630,000	₩630,000	
의0000	둘다(구매)	개상인	7	57	₩6,315,000	₩902,143	1	3	₩365,000	₩365,000	50마리이상
원0	둘다(구매)	개농장	18	70	₩4,840,000	₩268,889	6	9	₩1,420,000	₩236,667	50마리이상
이00	둘다(판매)	개농장	6	14	₩4,265,000	₩710,833	5	24	₩2,930,000	₩586,000	
서00	둘다	개농장	9	20	₩4,225,000	₩469,444	12	30	₩6,450,000	₩537,500	50마리 이상
이00	둘다(판매)	개농장	13	18	₩3,860,000	₩296,923	15	30	₩5,990,000	₩399,333	
반0	둘다	개농장	8	11	₩3,520,000	₩440,000	5	12	₩1,305,000	₩261,000	
하0	둘다(판매)	개농장	6	15	₩3,330,000	₩555,000	21	104	₩10,780,000	₩513,333	100마리이상
중0	둘다(구매)	개농장	8	18	₩3,025,000	₩378,125	1	3	₩550,000	₩550,000	
길0	둘다	개농장	21	51	₩3,005,000	₩143,095	20	48	₩4,010,000	₩200,500	50마리이상
이00	둘다(구매)	개농장	14	29	₩2,780,000	₩198,571	10	10	₩1,420,000	₩142,000	

11) 성격추정: ①개농장: 개들을 판매한 횟수 및 마리수가 많은 경우 사육한 개들을 경매장에 판매하는 '개농장'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중간 상인이 개들을 개농장에서 매입하여 도살장에 넘기거나 직접 도살하지 않고 경매장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소수가 오류로 산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개상인: 개농장이나 개인으로부터 개들을 사들여 이를 유통하거나 수집해 온 개들을 유통과 도살 지육 납품까지 병행하는 경우로 추정하였다.

회원명	구매/판매	성격 추정 ¹⁾	구매 횟수	구매 마리수	구매금액	평균구매액	판매 횟수	판매 마리수	판매금액	평균판매액	거래규모
김00	둘다(구매금)	개상인	3	18	₩2,760,000	₩920,000	1	1	₩120,000	₩120,000	
임00	둘다(구매금)	개상인	5	15	₩2,430,000	₩486,000	1	1	₩215,000	₩215,000	
김00	둘다(판매금)	개농장	8	16	₩2,390,000	₩298,750	8	27	₩3,775,000	₩471,875	
신00	둘다(판매금)	개농장	11	14	₩2,230,000	₩202,727	32	164	₩19,990,000	₩624,688	100마리이상
호0	둘다	개농장	8	28	₩1,870,000	₩233,750	10	31	₩4,075,000	₩407,500	50마리 이상
천0	둘다(판매금)	개농장	3	12	₩1,800,000	₩600,000	4	68	₩15,955,000	₩3,988,750	50마리이상
김00	둘다(판매금)	개농장	10	26	₩1,650,000	₩165,000	25	54	₩9,300,000	₩372,000	50마리이상
대0	둘다	개농장	1	4	₩1,295,000	₩1,295,000	1	3	₩515,000	₩515,000	
강00	둘다	개농장	1	5	₩1,290,000	₩1,290,000	1	4	₩575,000	₩575,000	
사0	둘다(구매금)	개상인	1	5	₩1,265,000	₩1,265,000	1	1	₩400,000	₩400,000	
김00	둘다(구매금)	개상인	10	26	₩1,260,000	₩126,000	2	3	₩180,000	₩90,000	
통00	둘다(판매금)	개농장	2	2	₩900,000	₩450,000	3	9	₩2,345,000	₩781,667	
자00	둘다	개농장	5	7	₩890,000	₩178,000	7	11	₩1,140,000	₩162,857	
탄0	둘다(구매금)	개상인	3	10	₩870,000	₩290,000	1	2	₩195,000	₩195,000	
현0	둘다(판매금)	개농장	6	9	₩835,000	₩139,167	16	56	₩10,915,000	₩682,188	50마리이상
박00	둘다	개농장	4	4	₩775,000	₩193,750	5	9	₩1,365,000	₩273,000	
김00	둘다	개농장	3	3	₩710,000	₩236,667	2	4	₩935,000	₩467,500	
통00	둘다(판매금)	개농장	3	5	₩640,000	₩213,333	2	3	₩625,000	₩312,500	
천0	둘다(구매금)	개농장	10	17	₩595,000	₩59,500	4	6	₩530,000	₩132,500	
윤00	둘다	개농장	7	11	₩595,000	₩85,000	6	6	₩1,145,000	₩190,833	
이00	둘다	개농장	3	5	₩570,000	₩190,000	2	6	₩1,045,000	₩522,500	
대0	둘다	개상인	2	2	₩405,000	₩202,500	1	1	₩140,000	₩140,000	
00	둘다(판매금)	개농장	3	4	₩380,000	₩126,667	6	9	₩820,000	₩136,667	
정00	둘다(판매금)	개농장	4	4	₩370,000	₩92,500	31	67	₩6,475,000	₩208,871	50마리이상
서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3	₩240,000	₩240,000	4	30	₩2,005,000	₩501,250	
박0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4	₩170,000	₩170,000	4	45	₩4,265,000	₩1,066,250	
장0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2	₩140,000	₩140,000	7	28	₩1,935,000	₩276,429	
아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1	₩120,000	₩120,000	2	3	₩425,000	₩212,500	
한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1	₩60,000	₩60,000	22	65	₩7,470,000	₩339,545	50마리이상
김0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1	₩50,000	₩50,000	3	17	₩2,195,000	₩731,667	
신00	둘다(판매금)	개농장	1	1	₩50,000	₩50,000	4	4	₩420,000	₩105,000	

[표9] 구매액 기준 상위 10개 구매자의 일 평균 구매액 및 총구매액 (개상인(도살자)) *구/판매자 = 구매와 판매를 병행했음을 의미함

순위	회원명	경매참여 횟수	구매 마리수	구매금액	평균구매액	월평균구매액	비고
구매 1위소	신0	28	412	₩81,400,000	₩2,907,143	₩27,133,333	* 구/판매자
구매 2위소	안00	32	267	₩67,345,000	₩2,104,531	₩22,448,333	* 구/판매자
구매 3위소	정00	22	185	₩50,530,000	₩2,296,818	₩16,843,333	* 구/판매자
구매 4위소	희0	31	156	₩40,405,000	₩1,303,387	₩13,468,333	* 구/판매자
구매 5위소	수0	15	121	₩33,050,000	₩2,203,333	₩11,016,667	* 구/판매자
구매 6위소	상0	31	200	₩32,800,000	₩1,058,065	₩10,933,333	
구매 7위소	정0	20	159	₩27,318,000	₩1,365,900	₩9,106,000	
구매 8위소	경0	18	105	₩26,030,000	₩1,446,111	₩8,676,667	
구매 9위소	경0	31	260	₩24,835,000	₩801,129	₩8,278,333	* 구/판매자
구매 10위소	일0	23	121	₩24,395,000	₩1,060,652	₩8,131,667	* 구/판매자

[표10]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 판매자의 일 평균 판매액 및 총판매액 (개농장)

순위	회원명	경매참여 횟수	판매 마리수	총판매금액	일평균판매액	월평균판매액	비고
판매 1위소	용0	13	334	₩98,785,000	₩7,598,846	₩32,928,333	
판매 2위소	초00	4	118	₩35,290,000	₩8,822,500	₩11,763,333	
판매 3위소	지00	10	95	₩35,170,000	₩3,517,000	₩11,723,333	
판매 4위소	민00	8	83	₩31,410,000	₩3,926,250	₩10,470,000	
판매 5위소	녹0	4	74	₩24,550,000	₩6,137,500	₩8,183,333	
판매 6위소	금0	3	79	₩24,195,000	₩8,065,000	₩8,065,000	
판매 7위소	이00	20	185	₩22,680,000	₩1,134,000	₩7,560,000	
판매 8위소	연0	29	204	₩22,360,000	₩771,034	₩7,453,333	
판매 9위소	신00	32	164	₩19,990,000	₩689,310	₩6,663,333	* 구/판매자
판매 10위소	차0	2	54	₩18,560,000	₩9,280,000	₩6,186,667	

거래동물 분석

• **품종별 표기방식**

- 누렁이: 지육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체중 40Kg 이상인 대형견 ‘도사 또는 도사혼종’을 말한다. 그레이트덴과 같은 마스티프 종과 리트리버 등 대형견, 도사견 등을 교배하거나 대형견과 진돗개를 무작위로 번식시켜 체구를 키운다.
- 백구, 황구, 브린들: 천연기념물 진도 혹은 그 혼종으로 백구와 황구 그리고 호피무늬 진도 혹은 그 혼종을 브린들이라고 한다. 검둥이, 황검둥, 블랙탄도 검정색 진도 혹은 네눈박이 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발바리: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발바리는 소형견 또는 소위 품종견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곤 한다.

-
- 거래동물: 경매장 전표를 기반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판매/구매된 동물을 견종별로 분석한 결과 도사 혹은 도사 혼종(누렁이)과 백구, 황구 등 진돗개가 주로 거래되었다. 견종별 총 거래 마릿수와 거래 총액은 (표 11)과 같다.
 - 체중별 분류: 보통 개의 몸집을 기준으로 체격과 살집에 따라 A급(40kg대 이상 도사견과 업자 기준으로 최상급 지칭), 열치기(30~35kg 도사견 및 진도 도사 혼종¹²⁾ 등 중간급 지칭), 국물용(살집이 적은 중·소형견 지칭)으로 분류되며 개들의 등에 스프레이로 분류에 따른 표식을 남긴다.
 - 거래량: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견종인 ‘누렁이’는 판매(도살) 마릿수의 35%를, 거래액으로는 59.3%를 차지한다. 도사는 과거 일본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여러 대형견들의 교배로 생산된 마스티프 종 개로서 동물보호법에 소위 ‘맹견’으로 규정돼 있으며 영국의 경우 위험개로 규정, 사육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 식용목적의 개농장에서 도사가 대규모 사육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번식과 도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견종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진도개 또는 혼종 백구와 황구로 각각 거래 마릿수의 25.0%와 20.8%, 거래 금액으로는 15.4%와 13.3%를 각각 나타냈다. 이 둘을 합치면 거래 마릿수로는 ‘누렁이’ 즉 도사견과 그 혼종보다 더 많다. 게다가 브린들, 검둥이, 블랙탄 등도 호반무늬 혹은 검정색이나 네눈박이 진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식용 산업에서 가장 다수 희생되는 견종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진도개 혹은 그 혼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 혹은 입주변이 시커먼 ‘입시견’이라 불리며 소위 식용개로 인식되는 견종이다.

[표 11] 2021년 9월~11월
경매 거래동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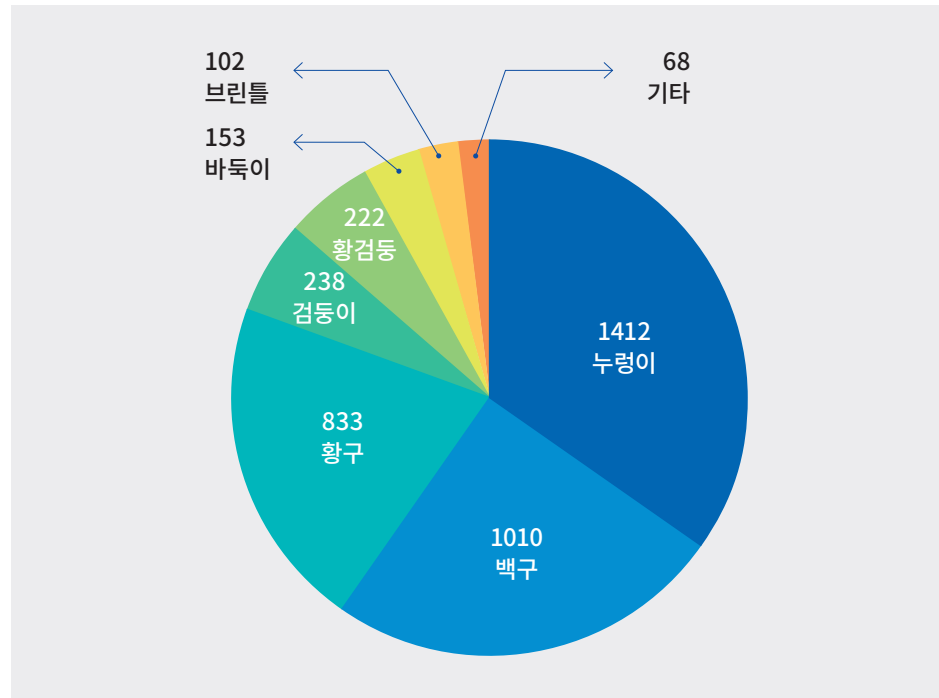
건종	구매수량(마리)	거래총액(원)	판매수량(마리)	거래총액(원)
누렁이	1408	447,525,000	1415	447,250,000
백구	1016	116,332,000	1003	113,502,000
황구	843	100,450,500	823	95,715,500
검둥이	244	31,798,000	232	23,170,000
황검둥	221	23,752,500	223	23,832,500
바독이	152	14,360,000	153	14,005,000
브린들	103	13,378,000	101	13,115,000
강아지	25	2,095,000	25	2,075,000
초코	14	1,350,000	12	1,070,000
각종	9	855,000	7	815,000
블랙탄	7	980,000	7	980,000
어미+강아지	5	610,000	5	610,000
미상	4	360,000	-	-
흰둥이	2	340,000	2	340,000
발바리	1	10,000	1	10,000
어미	1	95,000	1	95,000
얼룩이	1	110,000	1	110,000
회색	1	165,000	1	165,000
	4057	754,566,000	4012	736,860,000

[표 12] 2021년 9월~11월
경매 거래동물별
거래단가

건종	구매단가(원)	판매단가(원) ¹³⁾
누렁이	317,844	316,078
백구	114,500	113,163
황구	119,158	116,301
검둥이	130,320	99,871
황검둥	107,477	106,872
바독이	94,474	91,536
브린들	129,883	129,851
강아지	83,800	83,000
초코	96,429	89,167
블랙탄	140,000	140,000
각종	95,000	116,429
어미+강아지	122,000	122,000
미상	90,000	-
흰둥이	170,000	170,000
회색	165,000	165,000
얼룩이	110,000	110,000
어미	95,000	95,000
발바리	10,000	10,000

13) 경매 특성상 구매가와 판매가가 동일해야 하나 원 자료의 일부 누락으로 구매/판매 단가의 차이가 발생함을 밝힌다.

[그림5] 견종 별 거래 마릿수(구/판매 평균으로 산출)



- 견종별 거래 마릿수: 3개월 간 1,412마리가 거래된 누렁이는 도사 또는 도사 혼종, 마스티프 혹은 마스티프 혼종, 그레이트 덴, 세인트버나드 등이며, 백구/황구/검둥이/황검둥/브린들 등은 진도 혹은 진도 혼종으로 이 모두의 거래 마리수는 2,558마리로 집계된다. 이 외에도 어미 개와 자견을 묶어 함께 거래한 건수도 5건 확인되었다.

[그림6] 등급 표시 목적으로 스프레이가 뿌려진 도살장 내 개들



② 도살장

시설

- 축산물 규율 법제: 국내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하에서 가축의 사육, 도살, 축산물로의 가공, 유통, 검사 등 모든 시설과 절차가 엄격히 규율된다. 본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로서 개 지육에 대한 도살·처리 기준 및 시설 규격은 존재할 수 없다. 즉 개 지육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과 절차 모두가 현행법상 전혀 규율되지 않는 것이다.
- 개 도살과 유통의 불법성: 개의 사육, 도살, 유통 전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최소 6개의 현행법에 저촉¹⁴⁾된다. 더욱이 최근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도살 행위는 도살의 잔인성이나 방법과 무관하게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이다¹⁵⁾.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다른 축산 동물과 구분하고¹⁶⁾ 개식용을 법의 테두리 밖에 두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또한 섭취 가능한 식품의 종류에서 개 지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¹⁷⁾

[그림 7] 일반적인 개 도살장 내부 전경 (여주 왕대리 도살장) / 전기도살봉이 있고 (붉은 원) 전면 계류장의 개들이 보는 앞에서 케이지 속에 개들이 있는 채로 도살이 진행된다. 케이지 망 속 개들은 망 속에서 서로의 품으로 숨고자 노력하고, 침을 흘리거나 심하게 헐떡이거나 몸을 떠는.



14) 자세한 법률 위반사항은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동물권행동 카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항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6)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p13, 동물권행동 카라

17)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재된 어류의 동물은 오소리, 타조, 뉴트리아, 캥거루이다.

• 도살장 시설

- 개 도살장의 일반 사양: 개도살은 인적이 드문 장소의 개농장이나 폐건물 또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이뤄진다. 도살장에 업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계류 중인 개들과 도살되는 개들이 분리된 도살장은 없었으며, 가건물로 도살구역이 분리되어 있던 도살장도 비명이나 털 태우는 냄새, 동료의 피비린내를 맡는 것은 물론 개들이 끌려가거나 도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개를 죽인 뒤 사체의 해체와 지육 손질은 개들을 도살하여 내장이나 털이 널려 있는 곳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즉, 살아있는 개들은 동료가 도살되어 해체되는 전 과정을 인지할 수 있다.

• 개도살장의 내·외부 집기

- 운송장비

- 산 개와 도살한 개의 지육을 운반할 트럭
- 올가미와 철제 집게(개의 목이나 허리를 졸라 끌어내기 위한 대형 집게)
- 철제 그물망 케이지(여러 마리의 개들을 넣어 운송하기 위한 케이지로 개들의 침, 혈액, 토사물, 배변, 털 등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로 소독이나 세척 없이 계속 사용)
- 천막과 그물(그물망 케이지를 덮어 은폐하는 용도, 지육 납품 시에도 동일한 천막과 그물 사용)

- 계류용 뜬장

- 도살과 해체가 이뤄지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뜬장 형태
- 여러마리의 개들이 합사되어 있으며 개들의 분변과 털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음

- 도살 관련 장비

장비명	용도
올가미	개의 목을 졸라 끌어내기 위한 도구
전기도살봉	전도체(철근, 철사, 쇠꼬챙이)에 전기를 연결하여 감전시키기 위한 사제 장비
고정용 갈고리	개를 묶어 도살하기 쉽도록 올가미를 고정하기 위한 갈고리
초대형 김장대야	도살한 개를 익사시킬 목적 또는 털을 그을린 개를 수세미로 닦기 전에 담가두기 위한 대형 통
탕지	개의 털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온수에 일정 시간 사체를 담그는 용도의 가열 장비
탈모기	닭털 제거 장비를 크게 개량한 것으로 돌기가 달린 통에 개를 넣고 돌려 털을 제거함
가스통 및 화염방사기	탈모기에서 제거되지 않은 잔털을 태우기 위함
냉동고	개의 머리카락이나 잘라낸 발을 보관하거나 더러 죽은 개나 지육을 넣어두기도 함

- 유통준비

- 도마와 칼 육절기(개의 분변과 털로 오염된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음)
- 바구니와 비닐(개의 지육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 바구니와 대형 비닐)

운영 및 영업형태

- 도살자 연령: 50대에서 70대이다.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개를 식용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개 도살을 업으로 삼는 공급자가 신규로 유입되기보다는 기존에 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그대로 영업을 이어간다.
- 위치와 형태: 도살업자들도 도살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야산이나 도심지 외곽 등에 도살장을 설치한다. 때로 환경자원센터 등과 같은 다른 업종을 전면에 내세우며 후면에 도살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살장 외부는 최대한 틈새를 막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개를 실은 트럭,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하는 소리 등을 자주 접하는 인근 거주민의 제보 없이는 도살장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 도살장 유형: 크게 △도살과 지육 납품, △개농장 또는 번식·도살 겸업, △개인 반려견 도살업 겸업, △다수 도살업자들의 공동 도살장(도살정거장)으로 정리된다. 보통 개들이 일정 기간 계류할 수 있는 뜰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 안에서 적게는 10여 마리에서 30여 마리 이상이 계류된다. 도살 목적뿐만 아니라 도살장 경비 또는 투견 등 부수익을 목적으로 핏볼을 도살장 마당에서 사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반인이 본인의 반려견으로 추정되거나 출처 불분명한 개들을 직접 도살장으로 데려와 도살을 요청하면 이를 진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고양시 용두동 도살장을 조사하던 중 한 남성이 백구 2마리를 데려와 바로 도살하는 정황이 목격되었다.

[그림 8] 용두동 도살장 뜰장에 갇혀 있던 도사, 그레이트덴, 핏볼



[그림 9] 노인의 손에 이끌려 백구 2마리가 도살장에 왔고, 1마리는 도살된 다른 백구가 손질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 추가 불법 운영 행위: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이 불가능’한 동물로서 허가받은 도살장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무허가 도살장에서 개뿐만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 하에서 규율 받는 흑염소 등도 함께 도살하는 불법 영업이 발생한다.¹⁸⁾

[그림 10] 여주시 왕대리 등 도살장에서 개뿐만 아니라 흑염소, 미니돼지, 닭, 칠면조, 사향오리 등이 발견되었다.



1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4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살방법 및 도구

- 도살방법: 개를 도살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살자 임의대로 개를 도살한다. 과거 목을 매달고 구타하여 도살하던 방식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한 전기 감전사를 많이 이용한다.
- 도살도구(전기도살봉): 전기 도살봉은 쇠로 된 꼬챙이가 달린 봉 형태이며 철근이나 철사 등 전도체 끝에 전선을 이어 전류를 흐르도록 한 조악한 도살 도구이다. 꼬챙이에 220V 차단기를 부착하여 스위치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12 참조) 꼬챙이의 손잡이는 대개 나무로 되어 있으며 꼬챙이를 연결하는 부위에 절연 테이프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다.
- 도살 시 고정: 개를 고정하는 공간 내지 도구는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울가미로 목을 조른 상태에서 도살장 바닥에 설치된 고리에 걸거나 철망 안에 여러 마리가 들어있는 채 그대로 쇠꼬챙이를 찌른다.

[그림 11] 개 도살장 4개소 현장에서 각각 압수한 사제 전기 쇠꼬챙이로 개들이 저항하며 물어뜯은 흔적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림 12] 도살봉에 부착된 220V용 누전차단기(위), 개도살자들은 380V 고압으로 도살하여 절명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나 380V용 누전 차단기(아래)가 부착된 전기도살봉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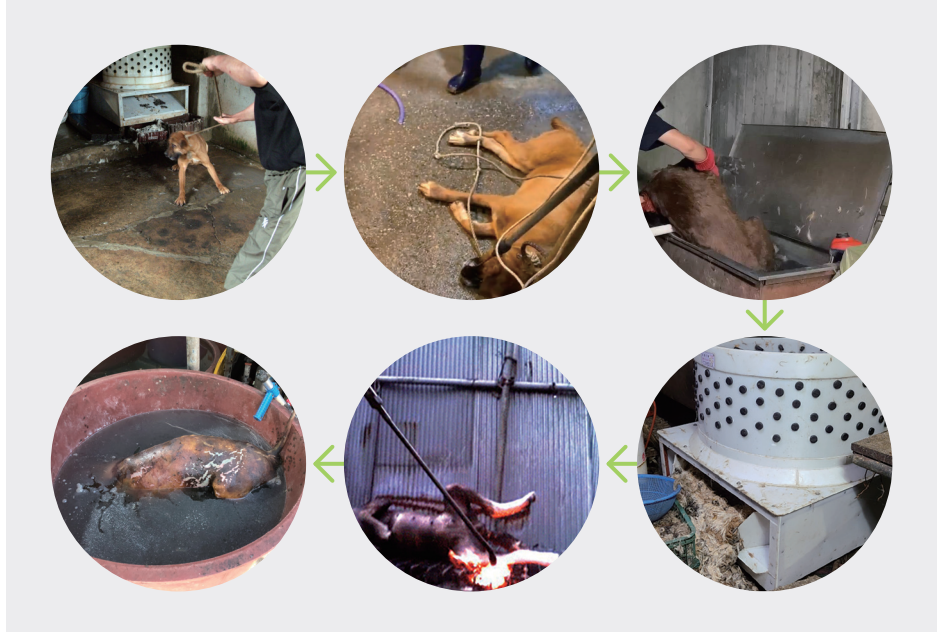


[그림 13] 울가미에 걸린 개의 머리를 고정할 목적의 고리(도살장 내부)



- 도살과정 개요: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개를 울가미를 걸어 끌어내거나 경매장에서 사온 개들을 철망 안에 있는 그 상태로 도살한다. 쇠꼬챙이를 주로 입에 쑤셔 넣어 도살하며 때로 귀, 항문 등에 넣어 감전사를 유도한다. 감전 후 물통에 넣어 익사시키기도 한다.

[그림 14] 개 도살과정



개를 끌어냄 → 올가미에 목을 결박당한 채 고정됨 → 쇠꼬챙이를 입에 물림(감전 후 익사를 위해 물에 담그기도 함) → 탕지에 넣어 불림 → 탈모기에 넣어 돌림 → 토치로 잔털을 제거함 → 물통에 담가 그을린 털과 기름을 제거함

[그림 15] 전기감전이 잘 되도록 개들에게 물을 뿌려놓은 모습



[그림 16]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문 채 쓰러진 개. 전기도살을 당하기 전 고통과 공포로 분변을 쏟아낸다.



- 도살 후 처리①: 사체는 온수가 담긴 ‘탕지’라 불리는 가열 가능한 쇠 사각 통에 몇 분에서 수십 분 간 담가진다. 이는 개 사체를 불려 털이 쉽게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탕지에 채워진 물은 사체에서 나오는 불순물과 털 등으로 악취가 진동한다. 탕지에서 몸을 불린 사체를 돌기가 붙은 원형 통 안에 넣고 돌려 털을 뽑는다.

[그림 17] 탕지에 담겨있던 개 사체



[그림 18] 도살된 개들의 털이 뽑혀 하단에 쌓여있는 불결한 도살장 내부의 모습



- 도살 후 처리②: 뽑힌 개 사체의 잔털을 제거하기 위해 토치로 그을린다. 이후 물통에 담겨 그을음을 제거하고 이후 칼, 톱, 육절기 등을 사용하여 개의 발, 머리, 내장을 발라 지육으로 만든다. 또는 절단하지 않은 소위 ‘통개’ 상태로 납품하기도 한다.

[그림 19] 토치로 그을린 후 물통에 담긴 사체



2) 경매장·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① 경매장

- 계류: 개의 계류 공간은 뜬장이며 한 공간에 30~40kg 대형견이 1~2마리, 많게는 3마리가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협소한 공간 속에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이다. 경매 호가가 이뤄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격이 흥정되며 노출되고 다른 개들이 끌려 나가거나 앞에서 철망에 던져 놓여지거나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시 목격한다.
- 핸들링: 개를 뜬장에서 빼거나 집어넣는 과정에서 올가미가 이용된다. 개를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개를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영업자 편의대로 올가미를 개의 목에 건 채 들어올려 철망 안으로 머리부터 거꾸로 던지기도 한다. 말을 듣지 않는 개를 막대기로 쳐 내리는가 하면, 올가미가 걸린 채 저항하는 개를 그대로 바닥에 끌고 가는 행위도 목격된다.

[그림 20]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



[그림 21] 올가미로 개를 철망에 넣는 행위의 학대/

- 1: 올가미를 개의 목에 걸음.
- 2: 목에 올가미가 걸린 채로 들어 올림.
- 3: 철망 속에 올가미로 고정된 채 구겨넣음.
- 4: 개의 목 부위 입파절이 부어오르고 입 부위에서 출혈 발생



- 운송: 개들은 조악하게 제작된 철망 케이지에 여러 마리가 구겨 넣어져 경매장으로 운송되며 다시 경매장에서 도살장이나 개농장으로 이동된다. 철망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돼 끊어져 튀어나온 철사에 개의 몸이 찢리기도 한다. 대략 가로 50~80cm, 세로 70~100cm, 폭 50~60cm 남짓의 철망 속에 10~20kg 중대형견 4~5마리가 구겨지듯 들어가 있으며 개가 깔려있거나 몸이 꺾여 있거나 고개조차 들 수 없어도 장시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림 22] 철망으로 이동된 개들의 상황



- 「동물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해야 함(제1항 제1호)을 명시하나 경매장과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내내 사료와 물은 공급되지 않는다. 또한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지만(제1항 제2호) 고온의 날씨 속에 냉방장치 없는 트럭 뒤에서 천막에 완전히 덮여 여러 마리가 구겨진 채 이동된다. 때로 구매자 개인의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에 들르게 되면 그 시간 동안 개들이 방치된다.

② 도살장

• 계류

- 공간: 도살장 내부 공간에 계류장이 있거나 도살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근접하거나, 계류장(뜯장) 안에서 옆 칸 개들이 보는 앞에서도 도살이 이루어진다. 즉 동종의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하고, 목전 도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전사로 인한 비명, 탄내, 도살작업 시 피 냄새 등이 반경 2~3m 안에서 발생하며 다른 개들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 사육: 계류 중인 개들에게는 사료 대신 재활용률 20%에도 못 미치는 음식물쓰레기를 아무 처리 없이 급여하거나¹⁹⁾ 폐기용 라면사리를 먹이는 도살장, 정체불명의 축산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 도살장이 있었다. 음식물쓰레기는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엄격히 처리해야 할 유기성 폐기물임에도 가열·멸균 등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상시 개에 급여된다.²⁰⁾

[그림 23] 도살작업장 (노란박스)과 계류공간 (빨간박스)이 근접하게 붙어 있다. 그 사이 개의 잔털을 그슬리는 토치작업대가 놓여 있다. 열린 문(빨간원) 사이로 도살 상황을 개들이 인지한다(용두동 도살장과 설문동 도살장). 아예 한 공간에 도살장과 계류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신곡동 도살장 왕대리 도살장).



1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의무자는 지자체 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행자(위탁자)를 둘 수 있다. 동법 제15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률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도살업자가 법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처리 대가로 부수익을 낸다.

20)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고시(「사료관리법」 고시[별표9])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C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하며 가열 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핸들링: 경매장부터 도살장으로 오는 내내 물과 사료가 급여되지 않는다. 개들은 탈진 상태로 도살장으로 오며 구조 현장에서 모든 개들이 다량의 물을 갈구한다. 경매장에서 다른 곳에서 온 개들과 섞이는 데다 불결한 도살장의 환경에 만연된 홍역 파보 등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되어 계류상태부터 도살되기까지 고통을 겪기도 한다. 계류 중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도살자에 의해 막대기나 골프채 등으로 구타당하기도 하며 도살된 개를 철장에서 끌어낼 때 버티는 과정에서 싸 놓은 분변이 발견되기도 했다. 개들은 농장에서 끌려 나올 때, 경매장 계류장에 진열될 때, 경매장에서 팔려갈 때, 도살장 계류장에 넣어질 때, 계류장에서 끌려나와 도살될 때까지 최소 4~5회 올라미로 폭력적으로 다루지며 개들의 공포는 극대화된다.

[그림 24] 개들에게 급여되는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그림 25] 술에서 발견된 개 급여용 내용물



• 도살과정 및 방법

- 도살전 제압: 2016년에 기소된 인천 개 전기도살 재판에서 피고인(도살업자)은 “개의 무는 습성을 이용해 쇠꼬챙이를 물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진술이 내포한 도살 전(前) 잔인한 폭력 행위의 선행을 파악할 수 있다.

[쇠꼬챙이 도살 방법의 폭력성²¹⁾]

- 동물은 위기 상황에서 투쟁-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을 보임. 만약 자신이 회피(flight)할 수 있거나 대상과 거리가 충분하다면 회피의 반응을 보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fight)을 결정함
- 개는 공격력이 있고 영리하여 울가미 등 폭력적 도구 외에 도살 목적의 고정불가능함
- 쇠꼬챙이를 무는 행동은 울가미로 고정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공포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공격하는 것 외에 달리 취할 방법이 없을 때 나타남. 따라서 개는 습성이 아닌 마지막 선택으로서 쇠꼬챙이를 물게 되고 의식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전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겪음. 따라서 쇠꼬챙이를 무는 행동은 잔인한 폭력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입증함

- 전기쇠꼬챙이 도살: 4곳의 개도살장 전부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도살에 사용했다.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380볼트의 고전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전압의 크기와 상관없이 쇠꼬챙이를 입에 물게하여 그대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장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킨다. 개 전기도살에 대해서 인도적 사회 수의학협회(Humane Society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길들여진 개에 대한 도살에서 인도적 전기도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조사 현장에서 도살된 개 사체 부검 결과]

- 고양시 용두동 도살장 현장에서 급습 직전에 사망한 개를 부검한 결과 피부 표피에 다량의 그을음이 관찰되고 전반적으로 복강과 장기가 발적되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즉, 전기도살로 인한 장기 및 조직의 화상이 주요 사인으로 확인된다.

*발적(redness): 소동맥, 모세혈관의 충혈에 의해 피부 및 점막이 빨간 빛을 띠는 것

21) 2018년 12월 동물권행동 카라가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

- 전기도살의 잔인성: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개에게 가해지는 전기도살을 ‘전살법(電殺法)’으로 해석한 바 있다. 전살법은 가축의 몸을 고정하고 머리카락이나 몸통 등 지정된 위치에 두 전극을 정확하게 통전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동물도축 세부규정에 따라 전압과 통전 소요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림 26] 전살법 도구/ 돼지의 경우 최소 1.25 암페어 이상의 전류로 2~4초간 통전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 전기도살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전살법이 아니다. 전살법은 전기로 의식소실을 유도하고 이후 의식소실 상태에서 방혈로 절명케 하는 도살 방법이다. 그러나 개 도살자들의 전기도살은 의식이 또렷한 채 내부 화상에 의한 고통사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전기 감전사된 개의 병성감정 결과서의 사인은 흉강과 복강 장기 등의 ‘화상’이었다.


또한 도사 등 체격이 큰 개들의 경우 한두 번의 전기 감전으로 절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통받는 시간이 연장된다. 일부 개 도살자가 전기감전된 개를 물통에 넣는데 이는 절명이 안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 익사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쇠꼬챙이 전기도살은 현행법이 규정한 ‘전살법’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물학대의 정점이자 동물복지 훼손의 총체로서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인천 개 전기도살 범죄의 무죄 파기를 이끈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응 과정

- **2017년 06월** 인천지방법원 개 전기도살 행위 무죄판결 최초 인지
 - ※ 2011년부터 연간 30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해 온 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전살법’의 하나로 판단, 인도적 도살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7년 07월**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및 도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명 조직
- **2017년 08월** 서울고등법원 앞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및 도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및 3만명 탄원서명 법원 제출
- **2017년 09월** 법률가 단체들, 서울고등법원에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 요구 의견서 제출
- **2017년 09월**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인정
- **2017년 09월** 사건 담당검사 직무유기로 고발
- **2017년 12월**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년 09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앞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 **2019년 01월**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환송심 해외의견서 법원 제출
- **2019년 03월** 전기도살 무죄판결 환송심 의견서 법원 제출
- **2019년 09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의 전기 충격에 의한 개 도살방식에 대한 소견서 법원 제출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개 전기도살 유죄 확정

※ 서울고등법원의 ‘개 전기도살’ 유죄 확정은 개식용 산업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쇠꼬챙이 감전사 행위를 위축시키고, 암묵적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도살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 부검 결과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접수번호		21AQD0163	접수일자	2021년 08월 10일	접수과	질병진단과
신청인	성명	김현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다리로 지상 122		
	업소명	동물권행동카라	전화번호	02-3482-0999	팩스번호	--
의뢰동물 정보	보호자 (발견자) 성명	김현지	농장명	[REDACTED]		
	주소 (발견장소)	경기도 여주시 [REDACTED]		전화번호	02-3482-0999	
의뢰 가검물 내역	속종	개	품종	비분류	연령	--
	가검물	수포 0 / 가피 0 / 타액 0 / 상피 0 / 침출수 0 / 환경시료 0 / 생환 0 / 폐사 1 / 혈액 0 / 월칭 0 / 분변 0 / 조적 0 / 기타 0				
검 사 건 과	<p>▶ 부검소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 12.7kg - 흉강 장기 및 복강 장기는 전반적으로 발적되어 있음 - 허 뿌리 부분 및 후두 덮개 부분 발적 <p>▶ 조직병리검사분류 : 일반염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표피에 그늘은 다량 관찰 					
	<p>▶ 바이러스검사분류 : PCR</p> <p>1. 시료번호: 21D163 (립프전, 미장, 폐, 심장, 신장, 간, 장, 뇌)</p> <p>2. 검사진병: Canine adenovirus (CAV), Canine herpesvirus (CHV) Canine influenza virus (CIV), Canine parvovirus (CPV) Canine distemper virus (CDV), Canine coronavirus (CCV) Canine parainfluenza virus (CPIV)</p> <p>3. 검사방법: PCR</p> <p>4. 검사결과: CHV, CCV, CPIV, CPV, CDV, CIV 전장기 음성 CAV : (폐, 신장, 간, 장, 뇌) 양성</p> <p>• 종합소견: 화상으로 진단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CAV가 검출되었으나 관련 조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p>					
진단	화상(burn)					
<p>•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p> <p>2021년 08월 31일</p> <p>농 립 축 산 검 역 본 부 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그림 27] 전기도살로 사망한 개체의 부검결과 표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 카라가 폐쇄한 4개소 도살장에서 당시 구조된 성견 129마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로부터 파악한 동물복지 현황이다.

① 개체 현황

- 평균 연령/성비: 수의사가 구조된 개들의 치아 상태를 평가하여 연령을 파악한 결과 평균 2세로 추정된다. 개의 수명이 12~15년임을 볼 때 성견이 된 이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도살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비를 보면 암컷 73마리(57%), 수컷 56마리(43%)이며, 1~2회 출산한 이후 암컷의 거래 비중이 컸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젓이 흘러나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컷도 있었다.

[표 13] 구조개체 평균 연령 및 성 비율

구조 장소	구조 마리수	암컷	수컷	평균 연령
설문동 도살장	34	19	15	1.9
용두동 도살장	33	15	18	2.4
신곡동 도살장	31	24	7	1.6
왕대리 도살장	31	15	16	1.9
합계(마리) 및 평균	129 (100%)	73 (57%)	56 (43%)	1.95

- 체중 현황: 구조된 개체들 98.4%는 10kg 이상의 중·대형/초대형견이다. 몸집을 크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농장에서 큰 체고의 개들 간의 강제 교배가 벌어지며 기이할 정도로 체고가 큰 개들이 생겨난다. 129마리 구조된 개체 중 몸무게가 50kg 이상인 초대형 도사견, 그레이트덴이 6마리(4.7%), 30~40kg 이상이 17마리(13.2%)에 달한다. 10~30kg 사이의 개들은 104마리(80.6%)로 진돗개와 그 혼종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리트리버와 시베리안 허스키, 웰시코기 등 소위 품종견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28] 용두동 도살장 내 성인 몸집보다 더 큰 체고의 도사견들



② 질병 현황

- 검진 항목: 구조된 동물들은 카라가 수립한 자체 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홍역, 파보, 코로나 키트 검사와 심장사상충 등 기생충 감염성 질환 검사를 받는다. 이외의 질병 정보는 중성화 수술을 위한 마취 단계에서 신체검사 및 혈액 채취를 통해 파악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구조동물 검진 가이드라인]

- 구조동물은 2주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 필수 전염성 질환 키트 검사: 홍역/ 파보/ 코로나/ 지알디아
: 모두 최초 입원 시 1회, (2주 계류 후) 입소시 1회 = 총 2회 실시
 -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
: 6개월령 미만은 추후 검사
 - 종합백신(기본 5종: DHPPL-홍역, 전염성간염, 파보바이러스장염, 파라인플루엔자, 랩토스피라/ 코로나, 캔넬코프, 광견병), 도살장 구조견들의 경우 치명적 전염성 질환의 전염으로부터 최대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예외적으로 구조 즉시 키트 검사 시행 후 음성일 경우 추가 잠복기 확인 없이 백신을 접종한다.
: 생후 45일 미만은 추후 접종
 - 구충(내외부)
- **2단계**
 - 혈액검사(혈구-CBC, 혈청-케미스트리: ALT, AST, TP, ALB, BUN, CREA, GLU, TBIL)
 - 항체가 검사(병원 or 랩)
 - 방사선 검사(흉부 2컷/ 노령견, 특이소견 등 일부 대형견 복부 2컷 추가)
 - 중성화 수술
 - 동물등록 치핑

• 검진 결과

- 구조된 개들의 90% 이상이 영양실조, 탈수,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중증 피부결손 등 각종 질환을 지니고 있었다. 기본 접종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홍역, 파보 바이러스 등 치명적 전염병 감염 개체는 약 10%, 지알디아 감염개체는 17%에 달했고, 암 또는 생식기 질환에 걸린 개들도 4마리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연령임에도 심장사상충에 걸린 개들은 37마리(28.6%)로 전체의 1/4이 넘는다.

[표 14] 구조개체 질병 현황

구분	파보	홍역	코로나	켄넬 코프	심장 사상충	지알 디아
설문동	2	1	2	0	11	3
용두동	0	0	1	0	13	7
신곡동	0	6	0	1	7	3
왕대리	0	0	0	0	6	9
계 (마리)	2	7	3	1	37	22

- 생식기 질환은 주로 암컷에게서 발견되며, 교배 및 잦은 출산에 따른 중증 자궁염증이 대표적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했을 신장질환, 간질환 등도 발견된다.
- 특히 모기를 매개로 하여 심장에 서식하는 ‘심장사상충’ 양성 반응률이 높는데, 이는 오랜 기간 외부 뜬장 속 계류, 발지킴이 및 마당개 등으로 방치 사육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심장사상충은 질병의 진행 정도(1기~4기)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폐렴, 색전증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고 그대로 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사율 높은 질병이며 완치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과 대형견의 경우 마리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 비용이 요구된다.
- 열기설기 엮은 뜬장 바닥에서 오랜 시간 사육된 개들은 대체로 발이 기형적으로 틀어져 있으며 지간염을 앓고 있다. 일부 발톱이 휘어지면서 발바닥 패드를 뚫는 경우도 있다. 철망 내지 뜬장의 끊어져 튀어나온 철사에 찢리고, 쌓이는 분뇨로 오염된 바닥에 장시간 접촉함에 따른 피부질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몸에 감염된 개체도 있었다.

[그림 29] 극도의 영양실조 및 중증 피부질환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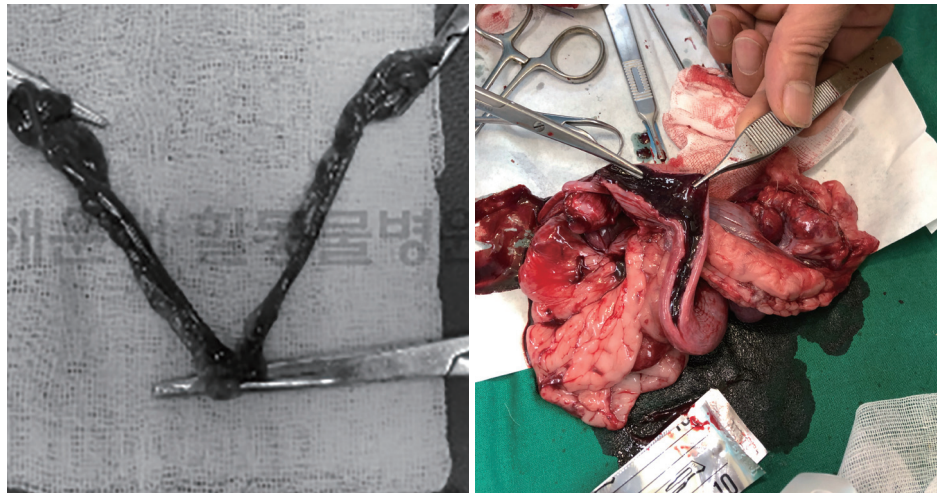
[그림 30] 뜯장 또는 철망 등으로 인한 피부결손 및 외과 처치



[그림 31] 오랜 시간 뜯장 방치로 발톱이 패드를 뚫고 있던 상태 이를 깎자 살 속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구더기



[그림 32] 정상적인 개의 자궁(좌)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구조된 개의 자궁(우)



[그림 33] 엄격한 격리와 집중 처치를 요하는 홍역, 파보 등의 전염병 치료



[그림 34] 개의 묶은 분변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기생충



[그림 35] 등에 중증 화상을 입은 채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 구조 개체 중 73마리의 암컷 개체 중 4마리가 출산, 수유 흔적이 있었으며 제왕절개 흔적이 발견된 개체도 있다.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축농증 등 중증 생식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암컷 3마리와 악성 고환종양이 발견된 수컷 1마리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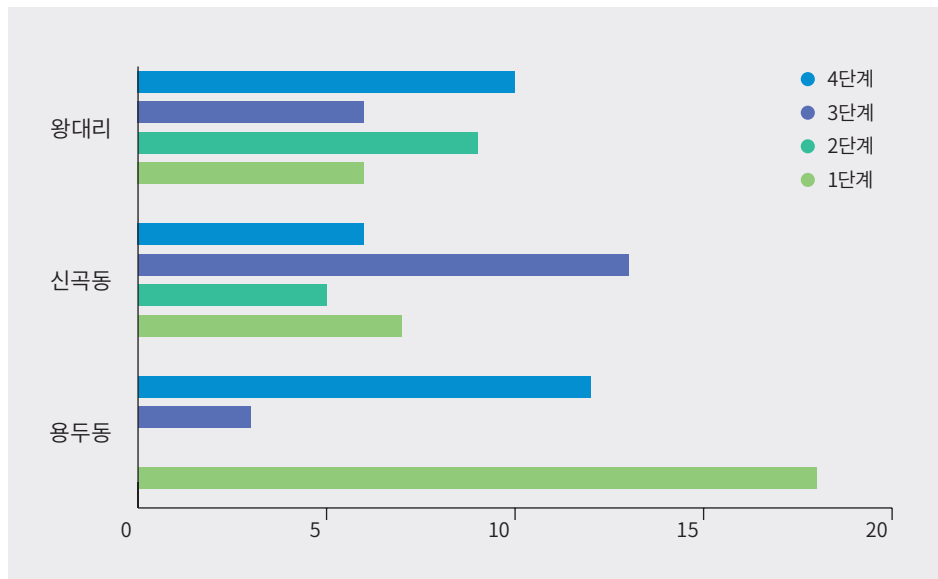
[표 15] 도살장 구조견들의 임신·출산·수유·자궁질환 등 상태/임신 말기에 도살장에 넘겨진 개가 2마리 있었고 막 수유를 끝낸 어미개도 도살장으로 넘겨졌다.

구분	수유중/수유직후 흔적	제왕절개 흔적	구조당시 임신	구조 후 중절	자궁 질환	구조 후 출산 자견수
설문동	1	-	1	-	-	5
용두동	2	1	1	1	3	-
신곡동	1	-	1	-	-	6
왕대리	-	-	-	-	-	-
계(마리)	4	1	3	1	3	11

③ 사회화 현황

- 구조견들의 사회화 파악의 중요성: 도살장으로 유입된 개들의 사회화 현황의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개고기의 취식을 위해 반려동물인 개들을 어떻게 다루며 도살장에 오기 전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지표이다. 또한 구조된 개들에게 가장 좋은 결말은 가정으로의 입양이므로, 각 개체의 친화도 파악은 필수적이다. 본 자료는 개도살장 구조견들의 사회성 정도를 평가한 최초의 자료로서 개식용 종식 국면에서 쏟아져 나올 구조견들의 보호 대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카라는 동물 친화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양에 필요한 사회화 훈련(훈련소, 가정 임시보호 등)을 진행한다.
- 친화도(사회화 정도) 조사기준: 다음은 각 도살장 별로 구조된 전(全) 개체의 구조 후 격리기간(2주) 내 친화도 단계 조사결과이다. 설문동 도살장의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개 33마리와 미니피그 1마리를 고양시 유기동물보호소로 긴급 격리조치 하였으나 이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동안 시보호소 내 돌봄 및 사람과의 꾸준한 접촉 등으로 33마리의 친화도에 변화가 발생, 도살장 구조 직후의 친화도 평가 데이터로 반영하기 어려워 설문동 도살장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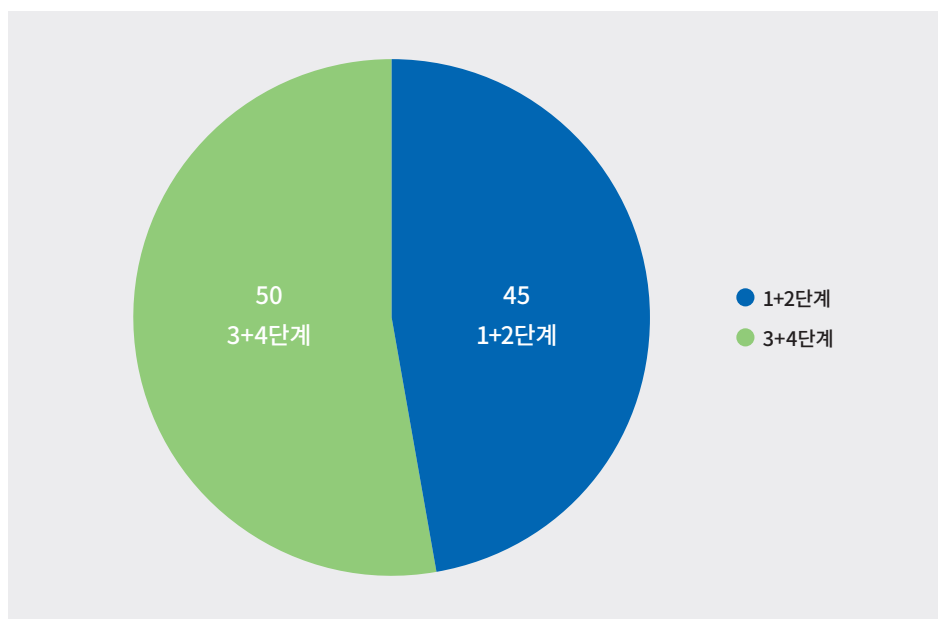
[표 16] 도살장별 구조건들의 친화도 정도



[친화도 레벨 - 숫자가 높을수록 친화도 높음]

- 1단계. 두려움이 커서 공격성을 보임
- 2단계. 겁이 많아 눈치를 보며 천천히 움직임
- 3단계. 차분하고 편안하게 다가옴 ← 3단계부터 입양 가능
- 4단계. 꼬리를 흔들며 적극적으로 다가옴

[그림 36] 친화도 단계에 따른 마리수



- 친화도 조사결과: 용두동 도살장의 경우 33마리의 개체 중 친화도가 매우 낮은 1단계의 비중이 18마리로 절반 이상(54.5%)이다. 반면 신곡동 도살장 개체들 31마리 중 19마리(61.2%)가 3단계 및 4단계이며, 왕대리 도살장 개체들 16마리(53.3%)가 3단계 및 4단계의 친화도를 나타냈다. 총 평가개체 95마리 중 50마리(52.6%)가 입양 가능한 수준의 친화도를, 45마리(47.3%)는 단시일 내 입양이 불가능한 수준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도사견 등을 포함한 30마리(34%)는 1단계의 친화도(두려움에 의한 수동적 공격성)를 가지고 있어 입양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 친화도로부터 평가한 개들의 이력: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종은 대체로 진도 혼종이 많고, 웰시코기, 포인터, 리트리버, 마스티프 등 소위 품종견도 있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도사 또한 모든 도살장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28마리의 개들은 4단계 사회화를 보이는데 이런 친화도는 백여 마리 혹은 수백 마리를 한 두 사람이 사육하는 개농장 집단 사육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개들이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살다 도살장으로 팔려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 중 일부도 온순하고 사람 친화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 친화도 조사 결과에 따른 입양 전망: 사회화 수준 1, 2단계인 45마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일부는 공격성마저 드러난다. 이는 사회화 시기를 놓친 개들의 특징이며, 개농장-경매장-도살장 사이클 속 내재된 폭력에 상시 노출됨으로써 사람이라는 존재로부터 회피하려는 본능이 크게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들은 구조하더라도 입양으로 귀결되기까지 재사회화 훈련에 들어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재사회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더하여 대형견 내지 초대형견의 경우 국내 입양이 사실상 어려워 해외 입양을 위한 항공료 등 추가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4) 위생과 방역

① 경매장

- 질병 매개소로서의 경매장: 경매장은 개상인과 개농장주에 의해 여러 이력을 가진 개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상시 음식쓰레기를 먹고 집단 사육하는 개농장의 열악한 방역 실태와 무분별한 자가진료, 기초 접종조차 받지 못한 개들이 아무런 점검 없이 경매장으로 유입된다. 여름 용돈벌이 용으로 예방접종 등 관리 없이 방치 사육된 개들도 속칭 ‘도보꾼’에 의해 여기저기서 매입되어 경매장을 통해 도살 유통되기도 한다. 경매장 내 계류장에 이 개들이 섞여 계류되면서 질병 감염이 일어난다. 잠복기 또는 질병 초기의 개들이 도살장으로 유입된다.

- 도살자의 경매장 출입으로 인한 악순환: 도살장으로 옮겨진 개들 중 계류장에서 감염된 개들 이외에 도살장에 상존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감염이 일어난다. 바이러스가 만연된 도살장의 계류장은 한 번도 소독이나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며, 트럭이나 그물 케이지 각종 집기와 운송 장비에 분변이나 오물에 부착된 바이러스가 경매장으로 재유입되어 경매장 매개 질병의 확산을 유발한다.
- 개 경매장의 방역: 개 경매장에는 출입자나 차량의 소독이나 방역 시설이 전무하며, 개들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그물 케이지나 울가미 등 개들의 침, 혈액, 분변으로 오염된 장비 일체를 사용 후 소독하거나 세척하지 않는다. 이전한 경매장 창고에는 개들의 먹이로 쓰려고 가져다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한 축산폐기물 바구니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매에 참여한 차량 중 다수가 축산폐기물과 음식쓰레기를 구하기 위해 개농장-도축장(도계장)을 드나들고, 동일한 차량이 대형급식 시설의 음식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심을 누비다 다시 경매장으로 온다. 현행법상 누구도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방역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어디든 언제든 프리패스의 특권을 누리며 방역망을 와해하고 있다.

[그림 37] 파주 경매장에 모여든 차량(위)과 경매장 폐쇄 후 발견된 축산폐기물(아래)



② 도살장

- 개도살장의 불법성: 허가업인 가축 도축장은 HACCP 관리 기준에 따라 도축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²²⁾ 도축장은 계류장, 도살방혈실, 내장처리실, 발골정형실 등 필수시설이 별도 구역으로 나뉘고, 각 공간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 방서, 방충설비 및 관리가 필수적이며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동선, 환경정비가 엄격히 요구된다. 그러나 소위 개고기를 생산하는 도살장은 동일한 ‘식용’ 원료를 생산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위생 준수사항조차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비위생의 극치, 개도살장: 도살장 내 개의 사체를 해체하는 공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살, 털 제거, 해체,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의 계류까지 전 과정이 한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더러운 집기와 도살 도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상식적인 위생관리와 방역은 모든 도살장에서 부재한 상태였다. 도살되기 직전 흘린 개의 분변부터 개의 내장, 털, 신체 일부 등이 지육이 해체되는 공간 바로 옆에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거나 바닥에 도살된 개들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신곡동 도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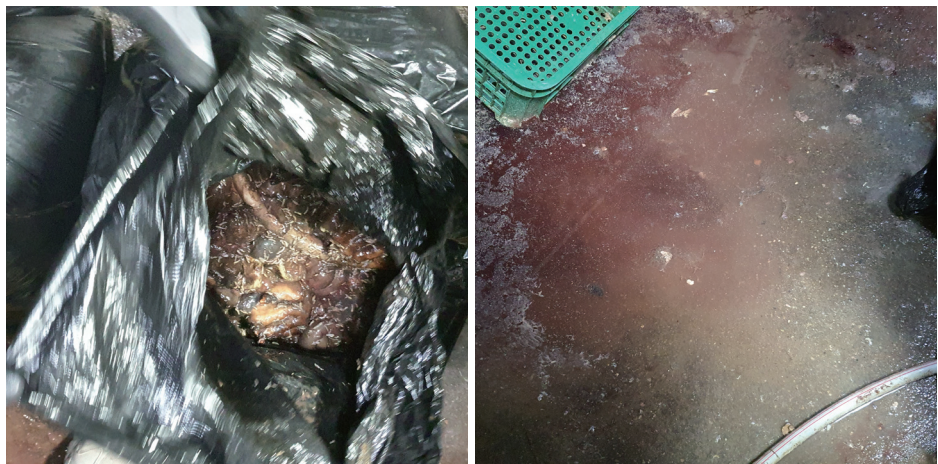
[그림 38] 도살장 내부 공간의 위생 상태



2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이 별표로 마련, ‘작업 개시 전/작업 중/검사관 책무/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 보관 및 운반업 등’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림 39] 개 내장이 담긴 봉지 속 구더기 및 도살장 바닥에 고인 개의 핏물 (신곡동 도살장)



[그림 40] 도살장
내외부에 방치된
탈모기로 제거된 털



[그림 41] 도살장
냉동고에서 발견된
백골화된 개 사체 및 사체
일부와 흑염소 사체



• 개 도살장의 방역

- 은폐된 도살장은 운영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도살시설과 사육시설 등을 지자체 허가 없이 난립한 경우가 많다. 4개소 도살장 역시 모두가 지자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법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분뇨, 도살 폐수 처리(하수), 매립, 소각, 투기 등의 다양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주변 환경에 오염을 야기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시설²³⁾을 설치하려는 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²⁴⁾ 개 사육시설도 배출 면적이 60㎡(약 18평) 이상일 경우 배출신고를 신고해야 하며,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도살장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계류장이 있음에도 개의 분뇨 및 가축계류와 도살 과정에서 사용된 오염수 등을 처리할 설비 자체가 없어 땅에 스며들고 있거나 하수도로 무단 배출되고 있었다. 도살장에서 나온 백골 사체, 개털, 내장, 절단된 신체 일부 등이 곳곳에서 미처리된 채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42] 용두동 도살장
(좌) 사체처리 잔해물
(하수구에 고인 썩은
폐수) 및 신곡동 도살장내
계류장 하단에(우) 분뇨가
쌓인 모습



- 방역체계가 전무한 환경에서 개뿐만 아니라 가금류, 돼지 등 타 동물 종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한다. 가축전염병 전파의 요인임에도 추적조차 불가능하며 전염병 방역의 치명적 허점이 되고 있다. 불법 소각시설을 해 놓은 도살장도 한곳 발견되었다.
- 도계장과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닭 내장, 닭 머리, 기타 축산폐기물이 도살장에 흘러 들어간다. 축산폐기물은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살아있는 동물에 급여가 금지되어야 하지만 도살장 내에서는 상시 급여된다. 개들의 질병 바이러스와 축산폐기물과 음식쓰레기로 인한 가축 전염병 방역 상의 문제를 안고 도살자는 지육의 납품을 위해 여기저기 보신탕집과 모란시장과 같은 대규모 시장을 누빈다.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를 포함하고 있다.

24) 본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하고 난 후에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③ 지육 유통

- 개 지육 유통의 불법성: 개 사체(지육)는 현행법상 식품원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 기준은 소위 개고기 생산 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 채 지육이 유통되고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행정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음지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 지육 유통 형태: 개 지육 내지 통개는 보신탕 및 건강원 등에 납품되면서 불법경매장-도살장-납품처라는 개식용 유통망이 형성된다. 모란시장으로 통개 상태로 유통하는 행위가 도살자 추적을 통해 적발되었으며 개도살자의 수첩과 간이세금계산서를 통해 여러 곳의 사철탕집(보신탕집)이나 건강원(개소주집)으로 개 지육을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 개 지육의 최종 종착지: 도살장 현장에서 발견된 거래장부, 명함,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의 자료에서 각처의 건강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주문받아 거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신탕’ 전문 식당은 급감하는 추세이나 대체로 ‘사철탕’ 내지 ‘삼계탕’을 간판에 내걸면서 다른 메뉴 중 하나로 개 지육을 조리한 음식 판매가 이루어진다. 간혹 ‘통개 예약’을 받는 음식점도 있다. 건강원도 마찬가지로 흑염소, 장어즙과 같은 메인 메뉴를 내세우고 부수 메뉴로서 ‘개소주’가 명시돼 있다.

[그림 43] 고양시 용두동, 의정부시 신곡동, 여주시 왕대리 도살장 현장에서 발견한 납품처 정보 및 도살자 명함



[그림 44] 통개 예약을 받는 음식점



- 개 지육 유통과정에서의 비위생과 위해방지: 일반 음식점과 건강원 등에 개 지육을 유통하는 과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정에 모두 위배된다. 도축검사관의 검사는 애초에 없고, 위생화나 위생모 등 기본적인 착장 의무도 지켜지지 않으며, 무더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트럭에 지육을 싣고 덮개만 걸친 채 이동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렇지만 식약처나 관계부처, 지자체의 점검과 단속은 전혀 없다.
- 질병에 걸린 동물의 지육 유통: 도살장에서는 전염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환경에 수의학적 처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 폐사한 개들이나 전염병 말기로 죽기 직전의 개들, 사상충에 감염된 개들 전원이 식용으로 해체되어 보양식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개 지육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축산물’에서 배제된 채, 식품으로서 절대 소비될 수 없는 상태로 유통되어 식탁에 오른다.

[그림 45] 도살된 개가 통개형태로 하차되는 모습. 냉장/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트럭에 위생화, 위생모 등을 일체 착용하지 않은 상태



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 개식용 산업의 폐쇄를 위한 활동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입양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대규모 개농장 운영 국가로 기형적인 형태의 개농장에서 ‘지육’을 많이 얻기 위해 개들의 덩치를 키워 놓았고 마릿수도 막대한 상황이다. 기형적인 동물 학대 산업인 개식용 산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지 공익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구조한 도살장 피학대견들의 구조부터 입양을 위한 치료 그리고 사회화에 소요되는 실비를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검사 및 접종 비용

- **키트 검사와 즉시 접종 및 격리 필요성:** 도살장의 사육 동물을 구조하는 현장에 수의사가 입회하고 바로 키트 검사를 진행해 전염병²⁵⁾ 여부를 확인 후 즉각적인 접종을 진행한다. 이는 해당 도살장 내 개체 간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음성이라 하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격리가 진행된다.
- **구조 후 기본검사 비용:** 개체 별 구조 직후 기본 처치 내역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29 마리 성견의 기본 처치만으로 약 4,560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마리당 약 354,000 원이 발생한다. 구조 개체군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키트 검사를 매일 반복 시행하여 이환 개체를 숙아내 치료를 개시하므로 아래 표의 단가는 개체별로 필요한 검사를 1회 시행할 경우의 단가이다.

[표 17] 구조 후 기본검사 비용

구분	단가(원)	마리 수	총액(원)
혈액검사(혈구,혈청)	99,000	129	12,771,000
키트검사 ²⁶⁾ (전종 전염병 및 사상충, 지알디아 등)	160,000	129	20,640,000
접종(홍역 파보 켄넬코프 코로나 인플루엔자)	95,000	129	12,255,000
			45,666,000원
마리 당 평균 기본 처치 비용 354,000원 소요 (VAT 포함)			

질병 치료 비용

- **전염성 질환 발생과 사망개체:** 구조 후 적극적인 키트 검사와 접종, 공격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12마리가 사망하였는데, 홍역, 파보 바이러스, 켄넬코프, 심장사상충 합병증 등 전염병으로 6마리, 위염전 증상으로 2마리, 지자체 보호 중 원인불명으로 4마리가 구조 후 사망했다.(표19) 홍역 및 파보 바이러스 등 치명적 질환에 감염된 상태를 확인한 즉시 항혈청 주사와 입원 치료 등 막대한 치료비를 들여 살려낸 개의 수는 6 마리다.²⁷⁾ 접종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지만, 경매장이나 도살장 그 어느 곳도 예방접종을 기대할 수 없는 바 불필요한 생명 희생과 막대한 비용 지출이 야기되는 것이다.

25) 홍역, 인플루엔자, 코로나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심장사상충, 지알디아, 아나플라즈마, 에를리키아

26) 최소 1회 기준이며, 양성인 경우를 대비해 5회까지 키트검사를 실시하기도 함

27) 설문동 구조개체 2마리(파보 바이러스 양성)와 신곡동 구조개체 4마리(홍역 양성)

[표 18] 도살장 별 전염병
질환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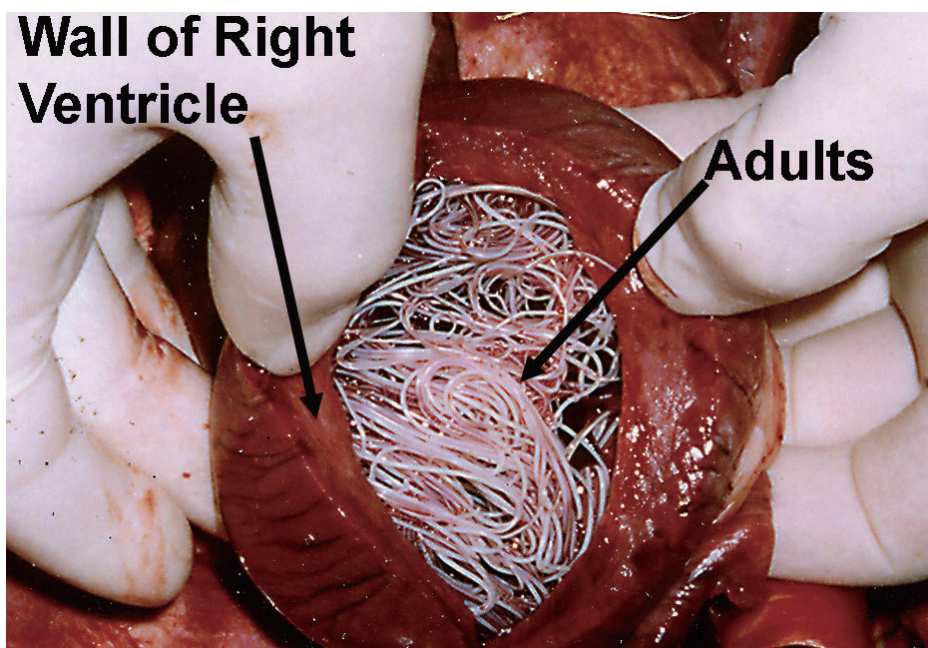
구분	홍역	파보	켄넬코프	심장 사상충	기타	비고
설문동	1	2	-	11	6	기타: 지알디아, 코로나, 외이염, 피부질환 등
용두동	-	-	-	13	8	기타: 지알디아, 코로나
신곡동	6	-	1	7	3	기타: 지알디아
왕대리	-	-	-	6	10	기타: 지알디아, 아나플라즈마
계(마리)	7	2	1	37	27	

[표 19] 질환별 사망
개체수

구분	홍역	파보	켄넬코프	위염전	사상충합병증 (추정)	원인불명 (지자체보호종 사망)	계(마리)
설문동	-	2	-	-	-	4	6
용두동	-	-	-	2	-	-	2
신곡동	2	-	1	-	1	-	4
왕대리	-	-	-	-	-	-	0
계(마리)	2	2	1	2	1	4	12

- 질환별 치료 비용: 질환 별로 치료받은 개체 1마리의 치료기간과 치료비 총액을 산출하기 위해 카라동물병원 치료 청구서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가장 많은 개체수가 걸린 심장사상충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치료에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전처치 약과 후처치 약의 급여 등 집중적인 케어와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 용두동 도살장 대형 구조견들의 심장 사상충 치료를 위해 사용된 전처치 및 후처치 약 제외, 사상충 치료제 1회 주사제 약값만 1천만 원에 이르렀을 정도이다.

[그림 46]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의 우심실
(출처: University of
Saskatchewan)



- 파보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 기간은 보통 2~3주로 최소 1,500,000원의 치료 비용이 소요되었다. 홍역은 후유증이 심한 질병으로 치료 기간은 대체로 3~4주,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며 대형 동물병원의 격리 병동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마리당 최소 약 5,000,000원 이상의 치료 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는 일반적으로 2주 기간이 필요하고 최소 800,000원의 비용이 든다.

[표 20] 심장사상충/ 파보바이러스/ 홍역 치료 비용(치료행위, 약 등 포함)

질병명	마리당 치료비(원)	치료 개체수	치료기간 (최소비용기준)	총액(원)
심장사상충	2,000,000	37	1개월	74,000,000
파보	1,500,000	2	2주	6,000,000
홍역	5,000,000	7	1개월	35,000,000
계(마리/총액)		46		115,000,000

- 합병증 유발 및 치사율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총 45마리의 개체가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총 치료비는 115,000,000원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외부 기생충 구제 등 별도의 필수 조치 비용 또는 지알디아, 코로나바이러스, 피부 결손, 고관절염, 외상, 기생충 구제, 예방약 투여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성화 수술 비용

- 중성화의 긴급성과 필요성: 임신 중기를 경과한 암컷을 제외하고 구조 동물 전원에 대한 중성화 수술은 기본적으로 시급히 진행된다. 개체수 조절과 더불어 자궁축농증, 유선종양, 전립선비대증, 고환종양 등 생식기 질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중성화 수술의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신 중기 이상 경과된 암컷의 경우 출산과 수유가 종료된 이후 추가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다.
- 구조견들의 중성화 수술 상태: 129마리 구조 개체 전원이 중성화 수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성 4단계를 보인 28마리 개들도 한때 반려견으로 살았을 것임에도 아무도 중성화 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임신 중기 이상의 개를 제외하고 모두 구조 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고, 말기 심장사상충 등 중증 질환 개체는 치료 후 프로토콜에 따라 적정 시기를 정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다. 중성화 수술 비용²⁸⁾은 체중에 따라 다른데 129마리의 체중이최소 5kg부터 최대 65kg에 이르므로 평균 체중 20~30kg 대형견 기준 최소 비용으로 산출하였다.

28) 동물단체 연계 병원의 중성화 수술 실비를 확인하여 대형견 기준, 암컷은 최소 30만원, 수컷은 최소 20만원으로 설정 산출했다.

[표 21] 암수 구분에 따른 중성화 수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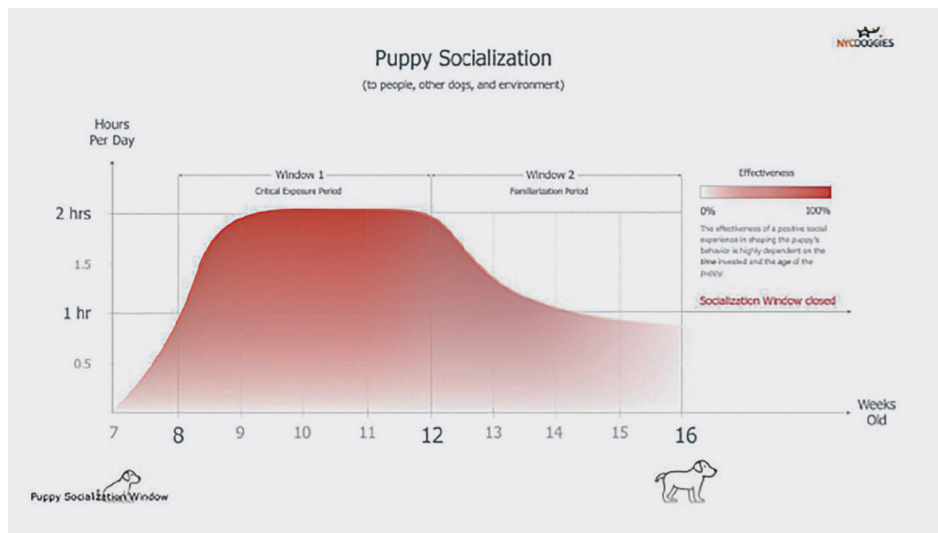
구분	단가(원)	마리 / 회수	총액(원)
암컷	300,000	73	21,900,000
수컷	200,000	56	11,200,000
부대경비 (수의사, 보조인력 등)	3,000,000	3	9,000,000
			42,100,000

마리 당 평균 중성화 수술 비용 326,360원 소요 (VAT 포함)
3인의 수의사가 1회 수술에서 30여 마리의 중성화를 시행함

사회화 훈련 비용

- 개들의 사회화 일반 개념: 개들에게 있어 사회성 발달시기인 생후 16주 동안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 특히 8주~11주의 기간은 생애 최초의 ‘두려움 각인시기(fear period)’로서 이 시기의 충격 또는 부정적 경험이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12주부터는 사회화 속도가 대폭 느려지며 16주를 경과하면 사회화의 효과는 매우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4개월~6개월령까지 사람과 긍정적인 접촉이 없이 자란 개들은 평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어 반려견으로서의 삶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희소해진다.

[그림 47] 개의 사회화 발달 단계 (출처: NYCDoggies)



- 도살장 구조견들의 특징: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평균 연령은 2살로 이미 사회화의 결정적인 시기를 도과한 개체들이다. 이중 약 절반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지 수동적 공격성을 보인다. 사회화 발달 시기부터 마당 또는 발 지킴이 용도로 방치사육되었거나 개농장 사육견으로 사람과의 교감이 차단되거나 경매장과 도살장을 거치며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사람에 대한 공포심에 방어적 공격성과 극심한 경계심이 나타나게 된다.

- 사회화 비용 산출: 친화도 1~2단계에 해당하는 개체의 경우 반려견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 훈련이 필수이다. 동물 행동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훈련소에 입소할 경우 매월 70만 원~80만 원의 비용이 들며, 소심한 개체 훈련에 ‘최소’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입양을 위한 1마리 사회화 훈련에 ‘최소’ 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체 중 친화도가 낮은 45마리의 사회화 훈련 비용을 계산하면 10개월 만에 순조롭게 사회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조차 훈련소 입소 전 동물단체에서 최소 3~6개월간의 돌봄 과정에서의 기초 사회화 진행 후 훈련소 입소를 전제로 하며 이 비용은 합산하지 않은 최소 비용²⁹⁾이다.

[표 22] 마리 당 평균 사회화 비용

구분	단가(원)	개월수	마리수	총액(원)
사회화 훈련	700,000	10	45	315,000,000
마리 당 평균 사회화 훈련 비용 7,000,000원 소요 (VAT 포함)				

- 돌봄 계류 비용: 피학대 동물 30마리 이상의 대형 구조의 경우 단체 내 수용시설 부족으로 외부 위탁처로의 입소가 불가피하다. 당시 구조되었던 129마리 모두 임시 외부 위탁처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돌봄을 받았는데, 마리당 월 300,000원으로 129마리 전 개체의 입소 비용은 월 38,700,000원에 달한다. 동물단체 구조조건들이 대부분 중대형견이며 비품종견이다보니 자체 보호시설에서 입양되는 개들의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어 입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도살장에 구조된 개들 대부분 중·대형견 및 초대형견의 특성 상 입양률이 소형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친화적인 개의 경우에도 입양으로 귀결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232,200,000원 이상의 위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9) 사실상 사회화가 어려워 입양을 포기한 채로 10년 이상 장기 보호가 필요한 개체도 있어 이 경우 보호 비용은 시민단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표 23] 구조 후 입양까지
마리당 투입되는 최소
비용

구분	마리당/1회당 단가(원)	기간(개월) /횟수	마리수	총액(원)
기본처치비용	436,000	1	129	56,244,000
심장사상충	2,000,000	1	37	74,000,000
중성화수술비용 (수술출장비 포함)	291,473	1	129	37,600,000
사회화훈련비용	700,000	10	45	315,000,000
위탁비용	300,000	6	129	232,200,000
총액				715,044,000

구조 후 입양까지 마리 당 최소 약 5,543,000원의 비용 발생

- 표23과 같이 1마리당 최소 5,54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위탁처에서의 보호 이후 △카라 보호시설 계류시 발생하는 보호 비용, △해외 입양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³⁰⁾, △진드기 예방 처치 및 경미한 질환 치료 비용, △일부 개들에게 나타난 고관절 수술 등 외과 수술 등은 산입되지 않았다.
- 개식용 산업은 불법 도살장의 적발 및 폐쇄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의 피학대 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비용은 보수적으로 최소 비용을 산정한 것인바 피학대 동물에 대한 치료, 보호, 입양 등 선순환을 구축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식용 산업 종식 국면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30) 개 1마리를 해외로 입양 보내려 한다면 항공비(약 400,000원), 검역증 발급을 위한 검진비용(최종 신체검사, 혈검, 엑스레이, 접종, 스켈링, 포디엑스 등으로 약 1,500,000원) 등 약 2,0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 조사결과 일람표 >

행위 구분	동물보호법		경매장		도살장	
	주요 연관 조항	주요 내용 (벌칙)	실태	위반 여부	실태	위반 여부
계류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69조 영업의 허가 (동물판매업)- 경매장(시설) 제69조 영업의 허가 (동물생산업)- 도살장(시설)	9조: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 수의학적 치료 제공 (권고)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급여, 더러운 뜬장에서 낫선 여러마리의 개체가 계류, 질병이환 개체 격리나 치료 없음	위반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급여, 더러운 뜬장에서 낫선 여러마리의 개체가 계류, 질병이환 개체 격리나 치료 없음	위반
		10조 4항 2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소한의 사육공간, 적절한 먹이, 위생 건강관리 부재로 질병감염이나 낫선 개체 간 물림 사고등 위험에 상시 노출됨	위반	최악의 사육공간, 부적절한 먹이, 최악의 위생으로 질병 감염 빈번, 동종의 개체가 도살되는 모습 상시 인지	위반
		10조 1항 2호: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영업	위반	무허가 시설 및 영업	위반
		69조: 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경매업 포함)허가 시설 기준을 준수해 허가를 득해야 함(무허가 영업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영업	위반	무허가 시설 및 영업	위반
		69조: 동물 생산(판매)를 하려면 시설기준을 준수해 허가를 득해야 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영업	위반	무허가 시설 및 영업	위반

행위 구분	동물보호법		경매장		도살장	
	주요 연관 조항	주요 내용 (벌칙)	실태	위반 여부	실태	위반 여부
핸들링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11조 (동물의 운송)	10조 2항 1호: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1조1항 4호: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100만원 이하 과태료)	올가미나 집게 밧줄로 목을 조여 끌거나 패대기치거나 막대기로 내리침. 좁은 케이지에 몸을 펴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로 구겨 넣고 케이지를 패대기침	위반	올가미로 조여 끌어내 도살위치로 끌고 가거나 막대기 골프채로 상해를 입힘	위반
운송	제 11조 (동물의 운송)	10조 2항 1호: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1조 1항 1내지3호: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케이지에 동물을 구겨 넣어 신체적 상해와 장시간의 고통 유발 운송시 물과 사료 공급 안함, 격리 공간 부재, 더럽고 손상된 케이지 반복 사용으로 상해 유발, 더운 날씨에 천막으로 은폐하여 호흡곤란 유발, 병든 동물, 임신중 동물도 구분없이 그물망 케이지에 구겨 넣는 학대 자행	위반	케이지에 동물들을 구겨 넣어 신체적 상해와 장시간 고통을 유발. 운송시 물과 사료 공급 안함, 격리 공간 부재, 더럽고 손상된 케이지 반복 사용으로 상해 유발, 더운 날씨에 천막으로 은폐하여 호흡곤란 유발, 병든 동물, 임신중 동물도 구분없이 그물망 케이지에 구겨 넣는 학대 자행	위반
도살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3조 (동물의 도살 방법)	10조1항 4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임의적 동물 도살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도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의 임의 도살	위반

[표24] 개 경매장과 도살장에 동물보호법 적용 시 위반사항 일람표

시설위치 (조사일자)	개들의 특징	시설내역			산개 매입	지육 유통	도살자 연령대	비고
		계류장 형태	도살장비	도살장 형태				
고양시 설문동 (2020. 12. 9)	리트리버, 허스키 등	뜬장, 도살장 외부 대각선 방향 근거리	전기쇠꼬챙이 (철사)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파주경매장	모란시장 통개 (확인)	60대	도살장 인근 거주, 불법 건축물, 개털 방지, 미니피그방치, 음식쓰레기 급여
고양시 용두동 (2021. 7. 1)	핏불 (투견번식/ 도살장경비) 초대형 도사 그레이트덴 케인 코스	뜬장, 도살장 외부 바로 옆	전기쇠꼬챙이 (굵은 철사)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미상	식당 직접 납품, 주문도살, 반려견 도살서비스 대행	50대	거주지에 도살장 보유, 개털 방지, 축산폐기물 급여
의정부시 신곡동 (2021. 7. 17)	토종 진도 혼종, 소형 품종견, 소형 발바리	뜬장, 도살장 내부	전기 쇠꼬챙이 (얇은 철근)	비닐하우스	파주경매장	개소주집 보신탕집 납품	70대	내장 방치, 계류공간에서 도살, 바닥 위 핏물과 구더기, 최악의 위생상태, 페라면사리 급여,
여주시 왕대리 (2021. 8. 8)	진도혼종 사냥개 중대형견	뜬장, 도살장 내부	전기 쇠꼬챙이 (굵은 철심) 그물망 케이지 내에서 집단 도살	슬레이트 지붕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파주경매장	모란시장 통개(추정)	설문동 도살자 (동일인)	도살정거장, 흑염소 불법 도살 병행, 설문동 폐쇄 후 도살장소 이전

[표 25] 도살장 조사 일람표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결론

1.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2. 개식용의 사회적 비용

V. 결론

1.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개식용 산업이 야기한 심각한 동물복지 훼손

-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의 핵심축인 경매장과 도살장은 극단적 형태의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도살 방법과 동물복지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개 도살 방법은 목을 매달거나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감전사시키거나 둔기로 죽을때까지 때리는 것이 전부이며, 이 모두 동물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생명권 침해이다.
- 4개 도살장에서 구조된 동물의 친화도를 살펴본 결과, 절반 정도가 별도의 사회화 교육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장 입양을 갈 수 없거나 사회화 교육을 거쳐도 향후 입양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난다. 개식용 산업 속에서 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대는 극도의 두려움, 또는 두려움으로 기인한 공격성 발현의 트리거로 작용하며 반려동물로서 일상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 또한 방역체계가 부재한 도살장 속 개들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전염병 등으로 급·만성 질환에 노출되며 구조 후에 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살장 폐쇄에 수반되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고도화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도살장에서 양산되는 소위 맹견과 천연기념물 진도의 방지

- 개농장 및 도살장에서 소위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의 무분별 번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개식용 종식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 마리로부터 많은 지육을 얻기 위해 누렁이 (도사 또는 도사혼종)의 번식과 매매가 성행하는 사실이 경매장 거래 전표로 확인되었다. 적발한 도살장에서 구조된 소위 맹견들 중 치악력으로 쇠창살을 휘어트린 핏볼테리어는 복부에 번식의 흔적이 관찰된 바 있다. 향후 개식용 산업 폐쇄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개들의 수용시설, 돌봄, 사회화 입양은 중·대형견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막대하게 크거나 사실상 해외 입양 이외에는 대책이 없어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식용으로 인해 소위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와 그 혼종의 총 개체수가 10만 마리 이상인 상황에서 맹견 관리 체계에도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거나 관리 체계 와해마저 예상된다.

- 누렁이(도사 또는 도사혼종) 보다 더 많이 거래되는 진도개 내지 진도혼종은 실제 4개소의 도살장을 폐쇄하면서 가장 많이 구조한 견종이다. 이미 천연기념물 진도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로 사실상 수많은 진돗개들이 방치 학대되고 있다. 나아가 방치로 끝나지 않고 전국 곳곳의 개농장 및 도살장으로 유입되고, 경매로 거래되면서 이들에 대한 극도의 학대가 상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문화재청훈령) 제5조에 진도군 내 진도개 적정사육두수를 1만두로 설정하고, 상한선 제한 없는 무작위 생산으로 잉여 개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개농장으로의 상시 유입을 야기시켜 왔다.³¹⁾ 진돗개 관련 법제를 총체적으로 점검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있는 보호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인간과 개의 관계성 측면에서 볼 때 도사견과 진돗개에 대한 집단 사육과 임의 도살 취식은 비인도적 행위이다. 도사 혹은 그 혼종은 사역견인 마스티프종으로서 인간에 대한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한 동물이다. 이 개들의 착한 품성이 대규모 번식과 학대 사육에 악용되고 있다. 반면 도사견은 전염성 질병에 취약하기로 유명하며, 개농장에서의 체구를 키우기 위한 마구잡이 교배 행위에 의해 체격이 커지면서 대형 마스티프들의 고질적 유전병인 고관절 이형성증과 심장 질환 등 치명적 질병에 더욱 시달리게 된다. 질병을 치료하려 해도 초대형견의 고관절 치환술에는 수천만원의 수술비가 소요되어 그마저 어려운 상황이 된다. 또한 소위 식용 개농장 및 불법 도살장에서 카라가 구조한 개체들 대다수가 바로 진도개 내지 진도혼종이며, 이는 국가의 천연기념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반증한다. 한편, 특히나 영리하며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진돗개에 대한 도살 학대 일상화는 동물에 대한 정서적 학대이자 천연기념물인 국견에 대한 부당한 비하행위이다.
- 정부가 개를 반려견과 식용견으로 임의 구분한 실태를 묵인한 결과로 개식용 산업의 기형적인 거대화를 조장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축산법에 정의된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이들을 소위 ‘식용견’으로 구분 지을 근거로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반려견에 동물등록, 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에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반면 개농장·경매장·도살장에서 생산, 사육, 거래되는 개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동물로 간주하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위법 행위들을 무위로 일관한 정부의 모순부터 각성이 요구된다.

31) 최근 문화재청이 훈령을 줄속 개정(2022.3)하여 진도군내 등록 진도개 마릿수를 500마리로 줄였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미 육지에 무분별하게 유입된 진도개와 진돗개가 번식되고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심지어 혈통이 인정된 진도개가 소위 식용 개농장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천연기념물 등록 견인데’...진돗개만 모인 식용 개농장 ‘충격’ (2021-10-08/ 이데일리)

2.

개식용의 사회적 비용

- 전국 각지에 난립한 불법 도살장을 적발하고 행정명령을 끌어내 폐쇄하며 피학대 동물을 온전히 구조³²⁾하기까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 종식의 여론 속에서 시민단체로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적인 모금 활동 기반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어 폐쇄 활동에 한계가 따른다.
- 카라가 적발·폐쇄한 4개소 도살장에서 구조한 개 129마리의 치료, 훈련, 위탁, 입양 등 전 과정에 투입된 비용은 7억 원 이상에 달한다. 이들 외에 당시 구조된 미니피그, 칠면조 등 7마리의 타 동물 종 개체들과 구조 후 태어난 11마리의 자견 등 약 150마리 개식용 산업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 및 보호 비용들을 모두 합산하면 1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단체가 이를 오롯이 짊어지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내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단체도 매우 드문 현실이다.
- 반면 소위 식용개 경매장에서의 현금 거래량은 9월부터 11월 3개월 간 구매총액은 7.5억 원, 판매총액은 7.3억 원이다. 6월~8월의 경우 복날이라는 한철에는 이보다 몇 배에 이를 만큼 많은 현금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장이 받는 수수료는 3개월간 구매자로부터 4,500여만 원, 판매자로부터 4,400여만 원이며, 한 달에 평균 3,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셈이다. 이러한 고수익이 불법 개 도살을 유지 존속하려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경매장 개상인(도살자) 및 대형 개농장의 현금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조사와 이에 따른 몰수·추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매장 및 도살장의 만연한 동물학대, 불법도살, 부정수익 등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다. 카라에 제보된 사례 중에도 도살장 인근의 지역 주민이 새벽마다 들려오는 개의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와 분변 속에서 방치된 뜯장 안의 소위 식용개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개 도살의 불법성을 인지하며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없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32) 피학대 동물의 구조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①동물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유기동물보호소로 입소 및 민간 분양이 있고 ②지자체 소유의 피학대 동물들을 시민단체로 기증처리 하여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로 입소 및 민간 분양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여전히 안락사가 진행되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바, no-kill 정책을 표방하는 동물권 시민단체의 개입을 호소하는 시민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
- 이전에도 개도살은 여러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복합적 산물이었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의도살을 금지한 현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개의 도살은 그 ‘행위’ 자체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개 ‘식용’, 즉 보신문화의 한 축으로 보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복지부동으로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지자체 행정력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 개의 사체(지육)를 보신 식품으로 간주하기에는 생산, 도살, 유통의 전 과정에서의 엽기적 비위생성과 잔인성을 인정하고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법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진행형이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세계유일의 반려동물 집단 사육과 도살 취식의 근거지이자 최소한의 방역체계 조차 전무한 소위 식용 개농장, 도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개식용 산업 종식에 대하여 정부 주도의 민관협약이 진행 중이다.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이를 위한 부수적 행정조치 마련에 앞서 동물학대, 위생불결의 총체인 개식용 연관 산업의 불법 행위를 현행법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을 뿐 아니라 사람-동물-생태계를 아우르는 공중보건의 건강성인 원헬스(one-health)적 접근법 도입에 있어서 필요한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VI

조속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을 위해

1. 정부의 무위 속에 방치돼 온 사람(국민)과 동물(개)의 안전과 복지
2. 현행법규의 한계 및 조기종식의 당위성
3. 입법기관의 역할
4. 행정기관의 역할

VI. 조속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을 위해

1.

정부의 무위 속에 방치된 사람(국민)과 동물(개)의 안전과 복지

- 개식용은 찬성과 반대의 논제이기 이전에 동물학대의 문제다. 또한 소위 ‘자연 소멸’ 예측 속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 1978년 이래) 거의 반세기 가깝게 정부가 방치한 결과,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불법의 온상인 기형적 개식용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행법이 개식용 산업에 대해 엄정하고 원칙 있게 작동했다면 작금의 지경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 오늘날 초대형 개농장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에 기생하며 모든 개를 고통스러운 죽음의 굴레로 몰아넣으며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매장과 도살장 등 개식용 유통망은 음식에서 활개 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동물보호 정책부터 기타 관련법 적용까지 전부 개식용에 관한 한 용인 또는 외면한 탓에 개식용 산업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군림해 왔다. 이제는 이익집단화하여 현행법 위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 개식용은 동물보호의 후퇴와 국가 이미지의 추락 말고도 우리 사회에 이미 여러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엄청나게 몸집을 불려 놓은 도사 등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비, 그리고 입양도 쉽지 않고 사회화 적기를 놓쳐버린 초대형 개들과 진돗개들의 훈련비는 고스란히 동물을 구조한 민간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연이은 개물림사고 소란 속에서도 유독 개농장의 소위 ‘맹견’ 도사 또는 그 혼종의 위험성은 간과되고 있으며 발생한 치명적 인명 사건·사고는 외면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아예 사육을 금지한 초대형견 도사의 무분별한 육종교배와 무한번식 용인은 그 사회적 위험의 크기조차 가능할 수 없다. 병든 개들을 비위생적 환경에서 불법 도살하여 그 지육을 검사 없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2.

현행법규의 한계 및 조기종식의 당위성

- 개식용 산업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최소 6개 현행법을 위반하며 이중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은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보건과도 직결된 위법 행위임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주무부처들이 현행법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살 가능 대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도 오히려 제외됐다는 것 때문에 무허가 도축으로 개를 규율할 수 없다는 역설적 논리가 난무하도록 만들었으며, 「축산법」에 명시된 가축에 개가 포함됨으로써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 양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 현행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개 도살 ‘행위’는 도살 방법과 무관하게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된다. 그러나 여전히 음지에서 발생하는 ‘도살행위’로 동물이 죽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여야 처벌 가능한 맹점이 있다. 즉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움직이기까지 구체적인 ‘도살행위’의 증거나 결정적 정황이 필요하고 이는 종종 민간의 역할로 미뤄진다. 출입 권한이 없는 민간의 위치에서 도살 증거수집은 많은 에너지와 노력, 위험 감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멈추지 말고 도살행위의 명백한 정황 증거인 ‘개의 지육’의 보유나 유통 판매만으로도 모두 처벌할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법률의 한계에 더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점검·관리가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신고대상에 넣음으로써 업자들에게 ‘합법 개농장’ 주장의 빌미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편법 및 불법이 난무하여 환경보호의 취지가 무색하다. 「폐기물관리법」 또한 개농장으로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유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상 절대 다수의 미신고는 물론 신고 개농장도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법률 자체의 한계와 악용도 문제이지만 지자체의 적극적 단속 및 관리 조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를 가중시킨다.
- 오늘날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시키며 개농장 내 생산/사육 두수를 대폭 제한하고 뜬장 및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전제로 개식용 합법화를 제시했을 때 이에 찬성할 개식용 산업 종사자는 없다.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고 그런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의 도살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해서 표준화, 고통의 최소화 연구가 뒤따라야 하나 인간의 행동언어와 소리 언어를 영장류보다 더 잘 이해하며, 개의 반려동물로서의 품성은 체구와 무관하게 ‘모든 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도살 방법을 연구할 ‘대상’ 자체가 부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 이미 현행법 위반, 잔인한 생명박탈, 이를 통해 얻는 상당 규모의 수익,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 등 개식용 산업의 존립은 공론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 시민사회 내 수용성을 잃고 있다. 정부도 불법으로 점철된 개식용 산업의 자연 소멸이 오판임을 인지하여 조속한 종식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3.

입법기관의 역할

-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은 개식용 종식 입법 시도는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모든 개의 반려동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동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으로 모두 폐기되었다. 이 중 2023년 4월, 다행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 임의도살‘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21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³³⁾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신설과 더불어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의 지원 조항이 담겼다.
- 한편 청와대는 2018년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규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 대통령은 개식용 금지의 신중한 검토를 지시, 2021년 12월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 상황이다. 실태조사 한번 없이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껏 방치해 왔던 터에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현행법에 따라 이미 총체적 불법 영업자인 개상인과 도살자 그리고 보신탕 업소까지 업계 영업자의 참여를 보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범법 행위를 일삼으며 동물학대로 비정상적 이득을 취해온 영업자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023년 현재 필요한 것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단과 ‘존재하는 개농장’을 효과적으로 소멸할 종식 로드맵, 그리고 조기 종식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개식용 산업이 발목을 잡았던 관련법 개정을 단행하는 한편 조기 종식을 목적으로 특별법 형태로도 담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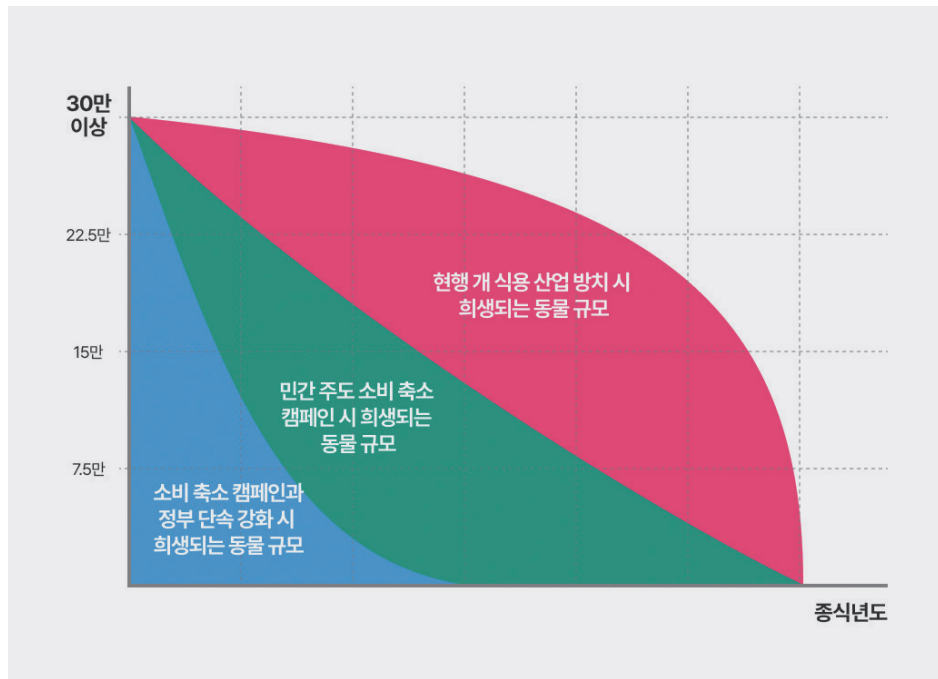
33)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4.

행정기관의 역할

- 개식용 산업 종식의 핵심 역할인 주무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적용을 기반으로 불법 식용견 경매장 및 도살장에 대한 치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동물에게 음식쓰레기 급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동물복지를 확보하고 방역상 구멍을 메꿔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대부분의 음식쓰레기 동물급여가 신고 수거가 가능한 개농장에서 이뤄져 환경 위해를 초래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불법 수거 및 동물에의 급여, 잔여물의 불법 매립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시급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가제로 강화하는데 이어 단기간에 불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
- 무엇보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에 의거 음식의 원료로 인정되지 아니한 개의 사체(지육)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생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지육의 유통, 가공, 식품으로의 판매가 모두 불법임을 공식화해야 하고, 즉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주무 부서로서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유입을 허용하는 잘못된 고시를 폐기하여 함부로 폐기대상 축산물이 개농장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림 48] 정부 개입 정도에 따른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규모



[그림 49]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개고기 소비
절벽의 필요성



- 개식용 산업의 조기 종식에 수반되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정부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 업자들은 불법 영업에 “생계”를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기 종식에 의사를 밝힌 업자에 한해 차등적 전업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에 놓이고 도살 위기에 처한 동물의 보호시설, 돌봄, 훈련, 치료 등 동물복지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정상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개농장 폐쇄 이전 매우 공격적으로 개농장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농장의 급격한 축소와 소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가 협력하여 각각 개소주 유통, 개지육 유통, 동물학대 처벌을 하고 환경부는 개농장에 유입되는 최대 자원인 음식쓰레기 수거를 시급히 허가업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들의 개고기 소비 절벽이 유도되고 이로써 개식용 종식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Before



동물권행동
카라



After



표 목차

표 1	경매장 및 도살장 일반현황 조사항목	10
표 2	조사항목 및 준용한 기준 법령	11
표 3	구조동물 실태 조사항목	11
표 4	도살장 위생과 방역 측면 조사항목	12
표 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산출 근거 항목	12
표 6	2021년 9월~11월 총 경매 횟수 및 경매 거래 규모	23
표 7	2021년 9월~11월 총 경매 참여 회원수 통계	23
표 8	2021년 9월~11월 간 구매 및 판매를 동시에 한 업자별 판매/구매액	25
표 9	구매액 기준 상위 10개 구매자 일 평균 구매액 및 총구매액	27
표 10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 판매자 일 평균 판매액 및 총판매액	27
표 11	2021년 9월~11월 경매 거래동물 분석	29
표 12	2021년 9월~11월 경매 거래동물별 거래단가	29
표 13	구조개체 평균 연령 및 성 비율	47
표 14	구조개체 질병 현황	49
표 15	도살장 구조견들의 임신·출산·수유·자궁질환 등 상태	52
표 16	도살장별 구조개체 친화도 정도	53
표 17	구조 후 기본검사 비용	62
표 18	도살장 별 전염병 및 질환 개체	63
표 19	질환별 사망 개체수	63
표 20	심장사상충/ 파보바이러스/ 홍역 등 질환 치료 비용	64
표 21	암수 구분에 따른 중성화 수술 비용	65
표 22	마리 당 평균 사회화 비용	66
표 23	구조 후 입양까지 마리당 투입되는 최소 비용	66
표 24	개 경매장과 도살장에 동물보호법 적용 시 위반사항 일람표	68
표 25	도살장 조사 일람표	70

그림 목차

그림 1	개식용 산업 유통도식도	20
그림 2	회원에 발송된 경매개시 문자/ 파주 경매장 주차장을 매운 트럭들	22
그림 3	경매가 진행 중인 파주시 소재 경매장 내부	22
그림 4	파주시 경매장에서 확보한 구매/판매 경매전표	24
그림 5	견종 별 거래마릿수 (구/판매 평균으로 산출)	30
그림 6	등급 표시 목적으로 스프레이가 뿌려진 도살장 내 개들	30
그림 7	일반적인 개 도살장 내부 전경(여주 왕대리 도살장)	31
그림 8	용두동 도살장 뜬장에 갇혀 있던 도사, 그레이트덴, 핏볼	33
그림 9	외부인이 데려온 소수 마리의 개를 요청에 의해 도살하는 행위	34
그림 10	개 외 발견된 다양한 동물 종(흑염소, 미니돼지, 닭, 칠면조, 사향오리 등)	34
그림 11	사제 전기 도살봉 형태	35
그림 12	도살봉에 부착된 220V용/380V 누전차단기	36
그림 13	올가미에 걸린 개의 머리를 고정할 목적의 고리(도살장 내부)	36
그림 14	개 도살과정	37
그림 15	전기감전이 잘 되도록 개들에게 물을 뿌려놓은 모습	37
그림 16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문 채 쓰러진 개	37
그림 17	탕지에 담겨있던 개 사체	38
그림 18	탈모기 하단에 도살된 개들의 털이 쌓인 모습	38
그림 19	토치로 그을린 후 물통에 담긴 사체	38
그림 20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	39
그림 21	올가미로 개를 철망에 넣는 행위의 학대	39
그림 22	철망으로 이동된 개들의 상황	40
그림 23	용두동 도살장 및 계류장 형태	41
그림 24	개들에게 급여되는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42
그림 25	솔에서 발견된 개 급여용 내용물	42
그림 26	전살법(電殺法) 도구	44
그림 27	전기도살로 사망한 개체의 부검결과	46
그림 28	성인 몸집보다 큰 체고의 도사견들(용두동 도살장)	47
그림 29	극도의 영양실조 및 중증 피부질환 개체	49
그림 30	뜬장 또는 철망 등으로 인한 피부결손 및 외과 처치	50
그림 31	발톱이 패드를 뚫고 있던 환경 상태	50
그림 32	정상적인 개의 자궁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구조된 개의 자궁	50

그림 목차

그림 33 홍역, 파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환견들 51

그림 34 묶은 분변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기생충 51

그림 35 등에 중증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된 개 51

그림 36 친화도 단계에 따른 마리수 53

그림 37 파주 경매장에 모여든 차량과 경매장 폐쇄 후 발견된 축산폐기물 55

그림 38 도살장 내부 공간의 위생 상태 56

그림 39 개 내장이 담긴 봉지 속 구더기 및 도살장 바닥에 고인 개 핏물(신곡동 도살장)
..... 57

그림 40 도살장 내외부에 방치된 탈모기로 제거된 털 58

그림 41 도살장 냉동고에서 발견된 백골화된 개 사체 및 사체 일부와 흑염소 사체 ... 58

그림 42 용두동 도살장 사체처리 폐수 및 신곡동 도살장내 계류장 하단에 적재된 분뇨
..... 59

그림 43 도살장 내부에서 발견한 납품처 정보 및 도살자 명함 60

그림 44 통개 예약을 받는 음식점 60

그림 45 도살된 개가 통개형태로 하차되는 모습 61

그림 46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의 우심실 63

그림 47 개의 사회화 발달 단계 65

그림 48 정부 개입 정도에 따른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규모 83

그림 49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개고기 소비 절벽의 필요성 84

동물권행동
카라

국가적 차원의 최단기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요구하며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발행일	2023년 8월 10일 발행
발행처	(사)동물권행동 카라
집필	전진경, 최윤정, 신주운
웹사이트	www.ekara.org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02-3482-0999
팩스	02-3482-883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646488
예금주	(사)동물권행동 카라
디자인	뉴나우디자인 0507-1431-9907